

退溪의 政治思想 研究**

- 戊辰六條疏와 聖學十圖 및 同筭子를 중심으로 -

琴 鍾 友*

• 目 次 •

I. 서 론	III. 聖學政治思想
II. 退溪의 정치관	1. 戊辰六條疏의 정치사상
1. 退溪時代의 정치적 상황	2. 「進聖學十圖筭」의 정치사상
2. 退溪의 出仕와 정치적 경험	3. 「聖學十圖」의 정치사상
3. 乾卦上九經筵講義와 西銘考證 講義와 謙의 사상	IV. 결 론

I. 서 론

퇴계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性理學의 성립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性理學이란 이름은 北宋의 儒學者 程明道(顥, 1032~1085)가 “天理” 2字를 처음 말하였고, 程伊川(頤, 1033~1107)이 “性卽理”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삼아 南宋의 朱子(熹, 晦菴, 1130~1200)가 周濂溪, 邵康節, 張橫渠, 二程子の 학설을 종합해서 우주관, 인생관에 대한 커다란 철학체계를 이루었는데 이 계통의 학문을 후일에 성리학이라고 한다는 것이다.¹⁾

* 전 경북대 일반사회과 교수

**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국의 철학』 제15호(1987) 게재논문

1) 李相殷, 「儒學과 東洋문화」, p198, 凡學圖書, 1976

성리학은 儒家 학설이다. 繼往聖開來學한 孔子는 당시 周末의 무도한 세태를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만년에 鄉里에 돌아와 時, 書, 禮, 樂, 易, 春秋를 門人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것을 정리하여 그 속에 道를 전하였다.

공자 後에 周末의 정치사회 상황은 더욱 혼란하였다. 列國은 전쟁을 일삼고 국내에서는 “臣弑其君하며 子弑其父하고”²⁾, “不奪하야는 不饜”³⁾ 하는 상황이었다. 戰國時代의 맹자도 列國의 君主들을 만나 보았으나 역시 道를 펴지 못하고 문인들과 학문을 강론하고 《孟子》를 지어 道를 전하였다.

그런데 맹자와 공자가 공통적으로 역설한 것은 人道이며 天道가 아니었다. 儒家人은 현실문제의 해결 곧 실천에 치중하여 이론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공자와 맹자가 人道를 역설하고 天道를 역설하지 않는 것은 天道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실천철학에 있어서 그것을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인간의 이성은 발전하면 할수록 궁극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바 先秦儒家에서는 이와같은 경향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儒家의 철학경향은 情·意의 철학경향이기 때문에 知의 문제보다 行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었다. 老莊에 이르러서는 情·意面의 실천보다 理·知面의 추구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老莊은 天道를 말하게 되니, 우주의 본체와 그 생성변화 그리고 人道를 또한 天道의 입장에서 말하게 된다. 이리하여 老莊에 이르러 형이상학적 이론이 발달하였다.

孔孟儒家의 現世間的 이론에 반하여 그들은 出世間的 이론을 제출한 것이다. 老莊學은 魏晉에 이르러 玄學으로 발전하여 그 극치를 이루더니 그것은 당시의 부유,안락한 귀족층의 염세적 분위기에 투합하여 마

2) 易, 坤卦文言.

3) 「孟子」, 梁惠王章句上

침내 淸談派의 철학을 탄생시키게 되었다.

한편으로 東漢末葉에 수입된 불교는 중국의 知性を 사로잡아, 出世間的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중국의 사상계는 魏晉의 老莊學으로부터 南北朝의 老·佛混流를 거쳐서 隋唐間에 이르러서는 외래사상인 불교로 기울게 되었다.

불교는 唐代에 이르러 全中國의 사상계에 군림하고 정치적으로 막대한 세력을 차지하게 되어 魏晉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老·佛을 연구하고는 儒를 떠나 老·佛에 귀의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唐宋間에 와서는 저명한 학자들이 禪門에 인연을 가지고 儒學者로서 高僧들과 교제왕래하였다⁴⁾고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있다. 韓愈(退之, 768~824)와 李翱(770~846?)는 道統說을 제기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李相殷 教授는 “宋學이 특이한 색채를 가지게 된 것은 중국지성의 자각에서 온 것이었다. 즉 육백여년동안 외래사상인 불교의 세력 하에 사상적 領導權을 빼앗겼던 중국인의 知性は 이제 다시 자기네의 고유한 사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이 發揚光大시켜 자기의 生理에 적합한 생활이념을 확립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생기었다”고 하고, 또 “宋代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민족의식적인 경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⁵⁾고 하고, 성리학이 과거의 先秦 儒學과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리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성리학은 孔孟儒學에 대하여 형이상학적 근거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孟子」의 離婁章句상의 “天下之本은 在國하고 國之本은 在家하고 家之本은 在身”을 인용하여 “身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며 그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성리학은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 그것을 구명하기에 힘썼다. 이것을 구명함으로 부터 그들은 본체론, 우주론의 학설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 주요한 공헌을 한 것

4) 李相殷, 「儒學과 동양문화」, pp.198~202 참조

5) 前掲, 「儒學과 동양문화」, p.206.

이 周濂溪의 太極圖說, 通書와 張橫渠의 西銘·太和篇이며 程朱의 理氣說”이라고 한다.

둘째, 성리학은 先秦儒學의 現世間的 사상과 老佛의 出世間的 사상을 지양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老佛과 같이 현실세계를 떠나려고도 하지 않으며 선진유학자들과 같이 현실문제에만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세계에 卽하여 세계를 벗어나는」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 人倫日用現實生活을 떠나지 않으면서 현실생활 가운데서 우주의 본체와冥합하려고 하는 인생철학이 그들의 특유한 정신이라는 것이다.

셋째, 성리학자들은 인생의 眞義를 실천하기 위하여 「尊德性」과 「道問學」을 중요시하였다. 「尊德性」은 「正心·誠意」의 공부이며, 「道問學」은 「格物·致知」의 공부이다. 「尊德性」에 있어서 程伊川은 「敬以直內·義以方外」를 말하였고, 「道問學」에 있어서 程子和 朱子は 「卽物窮理」를 역설하였다.

요컨대 宋明儒의 성리학의 목적은 정욕의 蔽를 제거하고 「虛靈不昧」한 心의 본체를 회복하여 處事接物에 있어서 過不及의 偏이 없는 「中」道를 실천하려 함에 있었다는 것이다.

넷째, 성리학자들의 학문의 방법은 체험·직관의 방법을 주로 하였다.⁶⁾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퇴계에 이르러 드디어 성리학의 蘊奧를 천명하여 그 宗旨를 결정하여 儒敎철학을 완성시켰다”⁷⁾고 이른다. 또한 儒學에 있어서 정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아울러 고찰하고자 한다.

孔子는 “政者는 正也” 곧 政이란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또 子貢이 말하기를 “만일에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널리하고 능히 무리를 건질진데 어떠 합니까 가히 어질다고 이르리잇가 子 가라사대 어찌 어진데만 일 삼으리오 반드시 聖人일진저 堯임금과 舜임금도 그 오

6) 上同, pp.209~210

7) 洲曙柳奭佑, “한국의 유교철학과 퇴계선생의 지위 및 그 시대의 社會情勢”, 경북대 퇴계연구소, 「한국의철학」 제3호(1975) p119

8) 「論語」, 顏淵 第13, 李康子問政於孔子 孔子對曰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

히려 病되히 여기시니라”⁹⁾고 하였으며, “博施於民而能濟衆”이 “어찌 仁이라고만 하겠는가 반드시 聖人이라고 하겠다”고 하였다.

言君陳有令德事親孝事上恭惟孝友於家是以能施政於邦孔子曰居家理故治可移於官……

곧 말하되 君陳이 令德이 있어서 아버지 섬김이 孝하며 위를 섬김이 公손하니 오직 그 집에서 孝하 友하는지라 이로써 능히 政事를 나라에 베풀어 孔子 가라사대 집에 居해 다스리는 故로 다스리는 것을 可히 官에 옮긴다 하시니라……¹⁰⁾

또 어떤 사람이 孔子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왜 政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孔子께서 대답하셨다. 「書經」에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그리고 형제에게 우애로워라. 효제를 행동으로써 政치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政치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늘 어찌 따로 政치를 할 것이 있는가¹¹⁾ 라고 하였다.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은 儒學의 목표와 그 실현의 단계와 절차 곧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格物·致知·誠意·正心”은 “修身”을 위한 방법이며 또 “明明德”의 방법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親民”의 방법이며, “明明德”과 “親民”의 궁극적 목표가 “至於至善”이다.

“至於至善”은 事理當然의 극치라는 뜻이며, 지극히 善한 것, 가장 善한 것을 말한다. 인간은 항상 가장 善한 것을 취하려 하니 이것이 곧 “至於至善”이다. 따라서 “至於至善”은 인간 또는 그 生의 완성을 의미한다.

“政事를 하되 德으로써 함이 譬하건데 北辰이 있으면 모든 별이 향하

- 9) 「論語」, 雍也第六, 子貢曰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如何可謂仁乎子曰何事於仁必也聖乎堯舜其猶病諸.
- 10) 「書經」, 君陳과 그 註釋은 다음과 같다. 王若曰君陳惟爾令德孝恭惟孝友于兄弟古施有政命汝尹茲東郊敬哉.
- 11) 「論語」, 爲政第二, 或謂孔子曰子奚不爲政子曰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於有政是爲政奚其爲政.

는 것과 같다”¹²⁾고 하였다.

“堯임금이 가라사대 아! 너 舜아 하늘의 운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四海가 困窮하면 하늘의 祿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¹³⁾라고 하고, “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 이라사 允執厥中 하리라”¹⁴⁾ (『書經』, 大禹謨)하고, 朱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蓋自上古로 聖神이 繼天立極而道統之傳이 明自來矣 | 라 其見於經則允執厥中者는 舜之所授禹也 | 라. 堯之一言이 至矣盡矣而舜이 復益之以三言者則所以明夫堯之一言이 必如是而後에 可庶幾也 라”하고 “夫堯舜禹는 天下之大聖也오 以天下相傳은 天下之大事也 | 라 以天下之大聖으로 行天下之大事하사대 而其授受之際에 丁寧告戒不過如此則天下之理 豈有以加於此哉리요”¹⁵⁾하여 천하의 이치에 이 이상의 이치가 없다고 하였다.

또 한편으로 퇴계선생은 “河洛圖書가 나옴으로부터 聖人이 그것에 기인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¹⁶⁾고 하여 儒教철학의 기본이 河圖 洛書인 것을 천명하였다. 河洛圖書의 기본철학은 太極陰陽論이다.¹⁷⁾

12) 『論語』, 爲政第二, 子曰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拱之.

13) 『論語』, 堯曰第二十, 堯曰咨爾舜天之歷數在爾躬允執其中四海困窮天祿永終.

14) 儒教經典講究所藏板, 『諺譯書傳』(1924)의 訓讀과 義理를 다음에 옮긴다.

(訓讀) 人心은 위태하고, 道心은 적으니, 精하며 一하야사, 진실로 그 中을 잡으리라.

(義理) 이는 攝位를 命하고 그 임금되는 法을 가르침이라, 사람의 마음으로 萬事를 應하나니, 形氣에 發한 마음은 사사롭기 쉬운 故로 人心은 危殆하다 함이요, 義理에 發한 마음은 밝히기 어려운 故로 道心은 積다 함이니, 精하여 雜되지 말고 한결같이 變하지 말아 道心이 主宰되고, 人心이 습을 좇게 하여야 中道를 잡으리니, 然後에 天下國家를 다스릴지라, 이 비록 帝王의 傳수하는 心法이나, 실로 儒家學의 근본이니라.

15) 『中庸章句』, 序.

16) “進聖學十圖筭并圖”(增補退溪全書1)

17) 琴鍾友, “전환기에서 보는 유교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제7회합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1987), 琴鍾友, “한국의 전통적 민주정치사상연구”, 『제5회합동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치학회(1983).

위에서 고찰한 바는 儒敎의 政治觀의 一端이며 유교정치사상의 심오한 範圍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퇴계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退溪의 出仕와 政治觀

1. 退溪時代의 政治적 상황

서론에서도 고찰한 바와같이 儒學은 同時에 탁월한 정치철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修齊治平의 儒敎의 정신과 經筵제도가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儒學者는 유교의 경전에 실린 정치의 사례와 성현의 정치사상을 知悉할 수 있다.

長沮와 桀溺이 함께 밭을 가는데 공자께서 지나다가 子路를 시켜 나루터를 물었다.

長沮 : “저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시오?”

子路 : “孔丘이시오.”

長沮 : “바로 노나라 孔丘이시오?”

子路 : “그렇소.”

長沮 : “그렇다면 그 분이 나루터를 아실거요.”

이번에는 桀溺에게 물었다.

桀溺 : “당신은 누구시오?”

子路 : “仲由라 하오.”

桀溺 : “바로 당신이 노나라의 孔丘의 문도이시구료?”

子路 : “그렇소.”

桀溺 : “天下가 모두 어지러우니 장차 누구로 더불어 어지러운 것을 變하여 다스림으로 바꾸리요. 임금이 쓰지 아니하면 이곳을 버리고 저

곳으로 가는 諸國을 周遊하는 孔丘를 좇아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같이 세상을 피해서 숨어사는 선비를 따르면 어떻겠소?”

子路가 돌아와서 告하자 孔子께서 길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새와 짐승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한다. 내 천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 천하가 이미 태평하게 다스려 있은즉 내가 바루고자 할 일이 없거니와 천하가 道가 없는 고로 道로써 바꾸어 태평케 하고저 함이니라.¹⁸⁾ 이것이 孔子의 정신, 儒敎의 정신의 一端 이라고 할 것이다. 儒學을 완성케한 퇴계는 儒敎의 경전을 통해서 정치가 어떤 것이며 정치의 당위에 대해서 알았음은 물론 出仕 期間에 직접 政治를 경험하였다고 할 것이다.

儒敎에 있어서 학문과 벼슬은 상보관계에 있다. 修己와 治人은 本末과 선후관계에 있다. 知行並進이 바람직한 것과 같이 학문과 벼슬의 並進이 바람직한 것일까.

孔子는 “君子는 謀道요 不謀食하나니 耕也에 餽在其中矣오 學也에 祿在其中矣니 君子는 憂道요 不憂貧이니라”¹⁹⁾고 하여 학문하면 祿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또 孔子는 “삼년이나 학문을 하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쉽지 않다”²⁰⁾고도 하였다.

子夏는 “벼슬하고 여유 있으면 학문하고 학문을 해서 여유있으면 벼슬하라”²¹⁾고 하였다.

학문과 벼슬은 相補 겸행이 바람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18) 「論語」, 微子, 第十八, 長沮桀溺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爲孔丘曰是魯孔丘與曰是也曰是知津矣問於桀溺曰子爲誰曰爲仲由曰是魯孔丘之徒與對曰然曰滔滔者天下 皆是也而誰以易之且而與其從辟人之士也豈若從辟世之士哉耰而木輟子路行以告夫子憮然曰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天下有道丘不與易也

19) 「論語」, 衛靈公, 第十五

20) 「論語」, 泰伯, 第八, 子曰三年學不至於穀不易得也.

21) 「論語」, 子長, 第十九, 子夏曰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것은 아니다.

孔子는 “篤信好學하며 守死善道니라”²²⁾고 하였는바 「論語集註」의 註釋은 이리하다. 독실히 믿지 아니한즉 능히 好學하지 못할 것이나 독실히 믿되 好學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이 옳 바르지 아니하고 죽기를 지키지 아니한 즉 능히 그 道를 착하게 하지 못할 것이나 죽기를 지키고 도 足히 써 그 道를 착하게 못하면 다만 죽을 따름이니 대개 죽기로 지키는 자는 독실히 믿은 효험이요 道를 착하게 하는 자는 好學의 功이니 라고 하고 “危邦不入하고 亂邦不居하며 天下有道則見하고 無道則隱이 나라.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耻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耻也니라”²³⁾고 하였다.

易, 乾卦文言에는 “亢之爲言也는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知得而不知喪이니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唯聖人乎니저”라 하였다.

퇴계의 出仕에 있어서 進退는 위와같은 사상을 거의 완벽하게 실천하였다고 할 것이다.

조선왕조의 창건은 정권교체와 더불어 문화의 변혁이 수반되었다. 따라서 국가이념은 유교정치사상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왕조는 儒敎主義 국가를 지향하였다.

태조 이성계와 개국공신들은 왕조의 개창 당초부터 새로운 儒敎를 채택하여 정치철학으로 삼아 儒敎정치가 진전하였다고 할 것이다.

新왕조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이 잡힌뒤에 즉위한 世宗(1418~1450)의 治世 32년간에는 儒敎문화·민족국가의 터전을 굳건히 하고 민족문화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한 것이었다.

世宗은 文風을 진작하여 儒敎의 왕도정치를 뒷받침하고 집현전을 쇄신하였다. 특히 經筵을 빈번히 가져서 經筵官으로 하여금 儒敎의 경적

22) 「論語」, 泰伯, 第八, 篤厚而力不篤信則不能好學然篤信而不好學則所信或非其正不守死則不能以善其道然守死而不足以善其道則亦徒死而已蓋守死者篤信之效善道者好學之功.

23) 「論語」, 泰伯, 第八, 集註.

과 時政을 강론케하여 儒敎정치의 이론과 실재를 실천하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

儒敎윤리의 보급을 위하여 三綱行實, 孝行錄등을 간행하여 널리 펴다. 冠婚喪祭등 의례는 「朱子家禮」를 준행하도록하여 이를 보급시켰다.

朱子學은 학문의 기본이 되어 四書·五經에는 朱子集註가 기준이 되고 「易學啓學」·「近思錄」·「增損呂氏鄉約」등 朱子의 저술이 尊崇되었다. 科學를 목표로 하는 儒學者들이 朱子의 학문에만 골몰할뿐만 아니라 朱子의 언행까지도 배우는 것이 참다운 聖學의 신봉자로 여겨졌다.

世宗때에는 明나라로부터 朱子의 「資治通鑑綱目」을 수입하였고 中宗때에는 「朱子大全」이 간행되었다고 한다.²⁴⁾

太宗·世宗대에 걸친 왕권확립에 뒤이어 東北面과 西北面の 野人을 鎮撫·經略하여 東北·西北界의 收復事業이 진척되어 조선의 疆域이 오늘의 領域의 기반이 되었다.

麗末이래 沿岸各地에 창궐했던 倭寇는 조선왕조 초기에 들어서도 그치지 않았다. 조선의 對日 관계는 한편으로는 외교로 또 다른편으로 회유책으로 倭寇禁絶에 부심하였다. 倭寇의 소굴인 對馬島에 대해서는 麗末부터 이를 정벌한 일이 있었으며 世宗六年(1419年)에는 대규모의 對馬島 정벌을 감행하였다. 世宗은 다시 倭人에 대하여 柔和策을 쓰고 倭船의 到泊處로 富山浦, 乃而浦외에 蔚山의 監浦를 더하여 3浦를 지정해 주었다.

3浦에는 倭館을 두어 그들의 來往과 교역에 편리하게 하였으므로 倭船의 來船은 더욱 빈번해지고 倭의 내왕자도 날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世宗 25年(1443年)에는 對馬島主와 조약을 맺어 歲遣船을 年 50척으로 歲賜米를 米豆 200石으로 제한하였다. 이로써 對馬島主외에 본토의 大小 호족들의 使送船의 來往할 여지를 주었다. 倭船의 來質는 女眞族의 進上과 같이 朝貢의 형식으로 官무역이 행하여졌고 이와 아울러 私 무역이 따로 행하여졌다.

24) 韓祐勳, 「韓國通史」, pp222~223, 乙酉文化社, 1970

15세기 중엽에 私무역이 늘어나는데 따라 密무역도 盛해져서 그것이 倭人과의 사이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15세기말에 조선은 私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對馬島主와 3浦의 倭人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中宗때에 3浦의 倭人이 亂을 일으켜서 朝鮮은 이를 진압하고 3浦를 폐쇄함으로써 對馬島主의 來貿는 한때 단절되었던 것이다. 그 뒤로 商倭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았으나 일본막부의 使船來往은 16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빈번했고 巨酋들의 通交도 크게 쇠퇴하지는 않았던 것이나 조선에서는 15세기 중엽 이후로는 使臣을 日本에 파견하는 일이 없어졌다²⁵⁾고 한다.

한편 조선왕조의 정치체제는 麗朝의 文武兩班체제를 답습하여 그것을 다시 개편한 양반관료국가였다. 韓沽躬 교수는 「韓國通史」에서 “그러한 체제의 기원은 중국 역대의 제도에서 유래된 것에는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그대로의 모방으로서만 족했던 것이 아니고…… 조선특유의 체제로 갖추어졌던 것이며 그 구조와 기능면에 있어서 특히 절대왕권과 양반관료 사이의 권력의 조화가 배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⁶⁾고 하고 있다. 계속해서 양반관료에 의해서 扶特되는 왕권의 안정은 이들 治者계 급인 양반들의 세력균형 위에서만 期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科擧시험의 공정한 시행에 의하여 양반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관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양반관료체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²⁷⁾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왕조의 정치체제와 사회제도가 처음으로 확립되어가는 15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양반관료 사이의 대립은 나타나지 않았다. 世祖의 왕위찬탈 이후로 世祖에게 충성을 바쳤던 공신들에 의해서 정권은 계속 농단되고, 이를 거쳐 世祖의 뒤를 이은 成宗(在位 1469~1494)은 弘文館을 새로 설치하여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서적을 편찬케 하고 조선왕조의 法典이 완성되기도 하였다. 그가 儒敎정치인 진흥을

25) 上揭書, pp.225~243.

26) 韓沽躬, 「韓國通史」, p.245, 乙酉文化社, 1970

27) 上揭書, p.268

피하여 人材를 박탈하여 등용하는 機會에 儒學이 가장 盛했던 영남지방의 학자들이 중앙官界에 많이 진출하였다. 이들 嶺南出身의 新進官僚群은 조선왕조 開創당시에 명망이 높던 학자이며 관료인 그들이 오랫동안 충성을 바친 舊 왕실에 대한 절의를 지켜서 新 왕조에 봉사할 것을 거부한 麗末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였다.

成宗때에 중앙官界에 진출하게 된 영남출신의 新進士類는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은 性理學을 연구하고 義理를 존중하였으므로 이들은 절의를 숭상하여 世祖의 왕위찬탈을 不義라고 생각하였다.

한편으로 기성세력을 이루었던 世祖의 공신들을 주축으로 하는 기성세력은 정권을 농단하였다. 정치의 부정과 불의, 사리사욕을 놓고 양반관료세력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성세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던 老成者들이며 그들은 학문적으로 詞章을 주로하여 朱子學 원래의 학문 경향에서 멀어져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양반관료세력의 대립은 정치에 대한 기본자세와 발상, 학문성격등의 相違가 점차로 구체적 대립감정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것이다.²⁸⁾

成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이 학자와 文人을 경원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어 더욱 不仁, 不明하게 되자 이와같은 대립은 표면화되어 드디어 新進士類들에 대한 박해가 거듭되었다.

연산군 4年, 1498年의 戊午士禍와 연산군 10年, 1504年의 甲子士禍에 많은 신진학자들이 죽음을 당하여 儒學은 쇠퇴하고 기강이 문란해졌으며 연산군을 廢하고 즉위한 中宗은 연산군의 虐政을 개혁하고 연산군때 쫓겨난 新進士類를 등용하고 성리학을 크게 장려하였다.

1515年(中宗 10年)에 성균관 儒生 200여명이 連名하여 靜菴 趙光祖를 천거하였고 이조판서 安瑒이 또한 그를 추천하여 六品の 관직에

28) 上揭書, pp.288~289 참조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임명되었다. 그 뒤에 君主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前後 5년간에 걸쳐 활약하였다. 그는 儒教는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夏殷周三代의 정치를 재현시키고자 하였다.

1518年 中宗 13年 그의 건의에 따라 賢良科가 설치된 후, 이를 통하여 젊은 선비들이 차례로 要職에 임명되고 1519年(中宗 14年) 38才로 大司憲의 요직에 올랐다. 그러나 그뒤로 반대파와의 대립에서 마침내 靜菴 趙光祖는 綾州에 귀양갔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다른 젊은 선비들이 귀양갔다가 死刑 또는 자살한 己卯士禍(1519年, 中宗, 14年)가 있었다.

1545年 明宗이 즉위하는 乙巳年에 王室의 외척인 大尹·小尹의 반목으로 일어난 士林의 禍獄으로 小尹이 大尹을 축출한 것이 乙巳士禍이다.

中宗의 第一繼妃, 章敬王后尹氏는 仁宗을 낳고 第二繼妃인 文定王后尹氏는 明宗을 낳았는데 章敬王后의 아우에 尹任이 있었고 文定王后의 아우에 尹元衡이 있었다. 尹任과 尹元衡은 國舅가 되어 반목 대립하여 世間으로부터 大尹(尹任) 小尹(尹元衡)으로 지목되었다. 中宗이 승하하고 仁宗이 즉위하게 되자 尹任이 득세하여 士林의 名士를 많이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士林은 그 기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뜻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尹元衡밑에 모여서 士林과 반목하고 尹任의 세력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仁宗이 겨우 在位 8개월만에 승하하고 12세의 어린 明宗이 즉위하여 文宗大妃가 垂簾聽政하게 되니 형세가 역전하여 이번에는 小尹 尹元衡이 득세하여 前日의 尹任의 세력을 제거하였다. 곧 禮曹參議로 있던 尹元衡은 自派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평소 大尹과의 私感이 있던 知中樞府事, 兵曹判書, 호조판서, 工曹判書등과 더불어 계책을 꾸미고 文宗大妃와 明宗을 선동하여 尹任과 이조판서 柳仁淑, 영의정 柳灌등을 반역음모죄로 몰아 귀양보냈다가 죽이고 이어서 桂林君도 이 음모에 관련하였다는 무고로 죽이고 前注書 李德應(尹任의 女婿)를 헐박하고 조작하여 무고로서 修撰 李載, 副提學

羅淑, 參奉 羅湜, 鄭希登, 朴光佑, 司諫 郭珣, 正郎 李中悅, 李文樾 등 10여명을 죽였다. 이 여파는 그 뒤 5·6년에 걸쳐 유배되고 죽은 사람의 수가 거의 100명에 달하였다²⁹⁾고 한다.

퇴계의 兄 李瀼도 尹元衡의 심복인 李芭를 탄핵했다고 해서 李芭의 모함으로 明宗 5年8월에 유배되어 配所로 가다가 도중에 사망하였고 퇴계도 李芭의 誣告로 削職을 당했다가 복직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중엽에 이르는 동안에 거듭된 政爭과 獄事는 士類들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반관료체제 자체를 크게 붕괴시키는 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치적 혼란에 따라 이미 문란해 가던 조선왕조 원래의 체제는 극도로 문란해 졌다. 퇴계선생의 시대는 이와같은 시대상황이었다.

2. 退溪의 出仕와 정치적 경험

퇴계선생의 姓은 李氏, 諱는 湜, 字는 景浩, 號는 退溪, 陶叟, 退陶, 退陶, 諡號는 文純, 본관은 眞城이다. 퇴계는 始祖 碩의 7世孫인데 시조 碩은 麗末에 眞寶縣吏로서 司馬試에 급제하였다. 뒤에 아들 松安君 子修의 榮貴로 인하여 奉翊大夫密直使에 進封되었다. 子修는 벼슬이 通訓大夫 判典儀寺事로 있다가 恭愍王 11年(1362年)에 裨將으로 紅賊의 亂을 토벌한 功으로 安社功臣의 號를 하사받아 松安君으로 봉하여졌다. 松安君이 倭寇를 피하여 安東府 豊山縣 南磨崖里로 移居하였고 뒤에 다시 周村에 옮기고 조부인 判書公繼陽때에 이르러 禮安縣 북쪽 濫溪의 泉石의 경치가 좋아서 비로소 卜居하게 되었다.³⁰⁾

퇴계선생의 先世는 嶺南士林派의 일반적 특징을 잘 지니었고, 松安君 때부터는 家勢가 흥성하여 후손이 번창하여 仕宦이 계속되었고 叔侄代에 와서는 마침내 禮安地方의 대표적인 士族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³¹⁾

29) 李弘植, 「國史大事典」, 百萬社, 1972

30) 「퇴계선생문집」(「增補 退溪全書」3) 續集부록 및 (「퇴계선생言行通錄」卷第6(「增補退溪 全書」4), 年譜條.

31) 李樹健, 「영남사립과의 형성」, 영남대학교 출판부, p.92, 203, 1984.

퇴계선생은 1501년(연산군 7년) 11월 25일 辰時에 禮安縣 溫溪里 본가에서 탄생하였다. 아버지 埴는 進士로서 뒷날 아들들의 榮貴로 인하여 左贊成이 贈職됐는데 불행하게도 퇴계가 출생한 翌年 6월에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禮曹正郎 金漢哲의 딸에게 장가들어 潛·河 두 아들과 딸을 남기고 金氏夫人이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 別侍衛 朴縉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4형제를 낳았으니 퇴계는 넷째이다. 퇴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적에 오직 맏아들만이 결혼하였고 그 나머지는 어린 아이로 남겨졌다. 퇴계의 아버지는 6남1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퇴계가 쓴 墓碣誌銘에 의하면 그가 죽기 전에 일상 말하기를 “내 아들중에 능히 나의 業을 계승하는자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여기 “나의 業”이란 무엇일까. 墓碣誌銘에 의하면 “公은 젊어서부터 아우 堦와 함께 뜻을 돈독히 하여 배우기를 힘써 羣書를 博覽하고 문장을 하셨으며 오로지 과거문에만 힘쓰지 아니하여 여러번 과거를 보았으나 늘 떨어지다가 庚申年 鄉試에서 首位로 뽑히고 辛酉年에 進士에 中試되셨다. 항상 분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며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면 학도를 모아놓고 학문을 가르쳐 주면 나의 뜻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나의 業”이란 학문하는 일이다. 그리고 퇴계는 어머니 朴氏墓碣文에서 “매양 자식들을 훈계하시되 문예에만 힘쓰지 말고 더욱 몸가짐과 행실을 삼가할 것을 중요하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사물을 비유하여 든다든가 어떤일을 붙잡아서 교훈을 삼는다든가 하시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고 절실하고 경각심을 높여 주지 않음이 없었다. 뒤에 두 아들이 大科及第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도 夫人께서는 그 榮進으로써 기쁘다 아니하시고 항상 세상의 시끄러움을 걱정하셨으며, 비록 문자는 익히지 않았어도 평소 先君의 庭訓과 여러 사람들의 서로 강습하는 말들을 자주들어 왕왕 깨닫는 바 있었으며 그 의리에 들

어맞고 사리에 통하는 식견과 사려는 士君子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부인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조용히 겸양하는 태도를 지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庭訓이 퇴계의 학문과 인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퇴계는 12세때 숙부 松齊公 堦에게서 論語를 배우기를 비롯하여 20세 周易을 읽고 그 뜻을 강구하기에 寢食을 잊다시피 하였다 한다. 이에 지나친 공부로써 오랜 痼疾을 얻게 되었다.

23세 1523年, 中宗 18年, 癸未에 서울로 올라가 太學(성균관)에 유학하였다. 이때에 己卯土禍(1519年)를 겪은뒤라 부박한 士習이 나타나지만 퇴계는 일상의 언행을 규범에 벗어나지 않게 힘썼다. 그 때 河西 金麟厚만을 친하게 지냈다. 이에 관한 年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해에 선생이 처음으로 太學에 들어갔다. 그때는 己卯의 禍를 지난 뒤였으므로 선비들의 풍습이 浮薄하여서, 선생의 행동거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비웃을 뿐이오, 서로 상종하는 이는 오직 河西 金麟厚 한 사람뿐이었다. 얼마 안되어 선생이 고향으로 돌아가니, 河西가 작별시를 지어 주었는데 “그대는 영남의 수재요, 李杜의 문장에 왕희지와 조맹후의 글씨라“는 구절이 있었다.³²⁾ 퇴계는 27세에 1527년 경상도 鄉試의 進士試에 응시하여 수석을 차지했고 生員試에 응시하여 차석으로 합격했고 이듬해 봄에는 進士會試에 차석으로 뽑혔다. 32세에는 文科別試에 응시하여 第二人으로 합격했다. 33세때에는 경상도 鄉舉에 응시하여 第一人에 천거되었으며 34세때 1534年, 甲午年, 中宗 29년에는 大科에 급제하여 出仕하게 되었다.³³⁾

퇴계의 出仕 시기는 1534年 34세때부터 49세까지로 본다.³⁴⁾ 그것이 바로 丹陽郡守가 되고 豊基郡守가 되는데 까지이다. 그 뒤에도 벼슬

32) 是歲先生始遊太學 時紀己卯之禍士習浮薄見先生舉止有法人多笑之所與相從者 惟金河西麟厚一人而已先生未幾還鄉河西以詩贈別有云夫子嶺之秀李杜文章王趙筆 (『退陶先生言行通錄』卷之六(『增補退溪全書』4) 年譜, 先生二十三歲條)

33) 『退陶先生言行通錄』卷之六 (『增補退溪全書』4), 年譜 참조

34) 李東英, 「朝鮮朝 嶺南詩歌의 연구」, p.85, 형설출판사, 1984.

을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퇴계는 항상 사퇴하고 물러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隱退 시기로 보고 있다. 그 이후로는 대부분이 임금의 召命 때문에 할 수 없이 入京했다가 벼슬살이를 한 것이지 자진해서 서울에 머문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벼슬에 品階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퇴하는 경향이었으며 正三品 이상의 벼슬이 除授는 되었지만 받아들인 적은 없다. 퇴계는 49세 되는 明宗 4年 9月の 豊基郡守 辭任狀으로부터 70세되는 宣祖 3年 9月の 乞致仕狀을 올리기까지 21년 동안에 무릇 53회의 辭退願을 올렸다.³⁵⁾

그러면 퇴계의 出仕기간동안의 관직을 고찰하면 丹陽 郡守와 豊基郡守의 두 外職이외에는 內職이다. 在職기간이 오랜 것으로 本職은 弘文館 벼슬 30개월이 가장 길고 兼職에 있어서 承文院벼슬 31개월이 가장 장기간이 된다. 다음으로 장기간을 차지한 것은 兼職의 經筵 24개월과 春秋館 21개월의 벼슬이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49세까지의 벼슬살이는 弘文館, 承文院, 經筵, 春秋館 네 官衙의 벼슬을 중심으로 그의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³⁶⁾

儒教정치사상에 있어서 君主는 권력의 핵심으로 有德하여 국민의 君師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朱子는 「大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有聰日月睿智能盡其性者 | 出於其間則天必命之하샤 以爲億兆之君師하샤 使之治而教之하야 以復其性케하시니…….” 이와같이 군주정치에 있어서 君主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고 君主와 世子를 교육하고 보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 없다. 文官으로 君主를 보좌하는 중심이 되는 기관은 弘文館, 承文院, 藝文館, 經筵이 있다.

퇴계는 弘文館에서 己亥年 (中宗 34年, 1539年) 39세때 從 6品の 副修撰으로부터 正六品 修撰을 거쳐 40세에 正 5品校理, 그리고 正 4品 應校, 45세때에 正3品 典翰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承文院에서 벼슬의 첫 출발을 副正安, 正字, 著作, 博士, 校檢, 校理, 校勘, 參校를 兼

35) 上同.

36) 李相殷, 「퇴계의 생애와 학문」, p34~37, 瑞文文庫, 1973.

職으로 역임하였다. 春秩館에서는 記注官, 編修官을 經筵에서는 檢試官, 侍讀官, 侍講官을 겸직으로 역임하였다.³⁷⁾

그런데 弘文館에서는 內府의 經筵을 管理하고 국왕의 對內的 發表文書를 製述하여 항상 國王의 顧問에 응하여 그 보좌의 임무를 수행하고 承文院은 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관장하는 기관임으로 對明關係와 對日關係의 외교문서를 다루는 아문이다. 특히 對明 외교문서는 격식이나, 문장표현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국가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또 중국의 문물제도와 학술사상 그리고 時務에까지 정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직무를 탁월하게 처리한 퇴계선생의 정치적 경험의 폭이 넓고 깊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春秩館은 당시 국왕의 政事를 記述하여 국사를 편찬하는 임무를 맡는 史館이다. 퇴계는 위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사실의 記述을 맡는 記事官, 記事에 대하여 褒貶의 의견을 말하는 記注官, 기록된 문서를 정리하여 편찬하는 編修官을 역임하면서 儒教經書와 史書를 통한 古今의 정치적 사례를 가까이서 경험한 기회를 가졌다. 經筵官은 국왕에게 儒教經典과 史書를 進講하고 古今人物과 時政에 대한 논평을 加하는 관직으로써 국왕의 학식, 견문을 넓히고 德性을 함양하여 국왕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정치적 자질을 높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국왕과 직접 面待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국왕을 통하여 자기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코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³⁸⁾

經筵에서 국왕과 신하들은 經史를 읽고 그 내용을 토론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왕이 經史에 담긴 정치의 원리와 실재를 학습하는 것이며 논의의 초점은 항상 君主의 역할에 귀착했다. 국왕의 가장 중대한 책임은 무엇이며 역대왕조의 君主들의 의무수행은 어떠하였으며 그들로부터 거울삼을 것이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였다고 하겠다.³⁹⁾

37) 李相殷, 「퇴계의 생애와 학문」, pp. 34~39 참조.

38) 上揭書, p. 37~40.

39) 權廷雄, “世宗祖의 經筵과 儒學”, 「世宗祖文化研究(I)」, p. 81, 博英社, 1982.

퇴계는 42세, 中宗 37年 壬寅(1542年) 3월에 또 經席에 入侍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大尹과 小尹의 외척들이 정권을 專擅하면서 권력투쟁을 일삼음으로 東漢章帝의 故事를 인용하여 외척專擅의 폐단을 경계하여 아뢰기를 “한 시대가 興할 때에는 반드시 한 시대의 規模가 있는 것이 큼니다. 東漢의 光武帝가 외척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급기야 외척의 손에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한 임금들이 친히 規模를 세웠지만 그 자손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나라일을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章帝도 어진 임금이었으나 그때부터 비로소 외척이 세도를 부리는 징조가 생겼습니다. 대개 史書를 읽고서 모름지기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혼란해지고 하는 까닭을 보아서 알게 된 연후에야 유익한 것이 있을 것이옵니다”고 하였다.⁴⁰⁾

3. 乾卦上九 經筵講義와 西銘考證講義와 謙의 사상

九二에 대해서 程傳에는 “田, 地上也, 出見於地上, 其德, 已著, 以聖人言之, 舜之田漁後也, 利見大德之君, 以行其道, 君亦利見大德之臣……”이라고 하고 本義에는 “九二雖未得位而大人之德……”이라고 하였는데⁴¹⁾ 퇴계는 乾卦九五를 君位로, 九二를 臣位로 말하였다. 그리고 文言에 이르기를 “亢龍이 후회함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孔子가 말하기를 貴하되 지위가 없고 높은 자리에 있되 백성이 없다 하였으니 어진 사람을 아래지위에 두어서 輔弼을 받을 수 없다. 이로써 후회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孔子가) “또 말하기를 亢이라는 말은 前進할 줄만 알고 후퇴할 줄 모르며 존재하는것만 알고 없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얻는 것만 알고 잃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 오직 聖人만이 나아가는 일과 물러가는 일, 存在하는 것과 없어지는 것을 알고 그 바른

40) 經席臨文 啓曰一代之興必有一代之規模東漢光武不尙外戚而及其亡也專由於外戚之手創業之君親立規模而子孫不能之以誤國事章帝亦賢君而其時有外戚 專擅之漸凡讀史須看治亂之所由然後有益矣,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增補退溪全書」 4), 年譜上)

41) 「備旨具解 原本周易」 乾卦 九二爻條.

길을 잃지 않는자는 오직 聖人만이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⁴²⁾하고 “臣은 아뢰니다. 임금은 권세와 지위가 지극히 높습니다. 진실로 전진하는 일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후퇴하게 되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없 어지며 얻으면 반드시 잃는일이 있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높고 겸손 하지 못하고, 꼭 차면 뜻과 기개가 교만하고 넘쳐서 어진이를 업신여기 며 스스로 聖人인 채 합니다. 혼자서 지혜로 세상을 다스릴려하고 신하 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德을 같이하여 誠意로 서로 믿고 함께 다스 리는 도리를 이론하기를 즐기지 아니하니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지 아 니 합니다”하고 “陽氣가 너무 높이 올라가 밑에 있는 陰氣와 교류하지 아니하여 구름이 비가 되어 만물에 은택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에 비유 하여 君王이 亢龍有悔가 없도록 亢滿하여 志氣가 교만하고 넘치고 어린 이를 만홀이 여기고 스스로 성인이 되지 말고 爲民德治를 위에서 臺下 와 同心同德하고 誠意로 서로 믿고 다스리는 이치를 이룩하기를 기꺼이 하여야 된다”고 하였다.⁴³⁾ 이어서 말하기를 “이 때문에 옛날의 현명한 君主는 깊이 이치를 알고 항상 스스로를 낮추어 굴하고 겸손하며 공경 하여 스스로 虛한 것처럼 하는 것을 君王의 道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寡人(德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이니, 涼德(薄德이라는 뜻)이니 予小子(어른이 아닌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니, 眇眇予末小子 (微小한 나이 어린 사람이라는 뜻)니 하였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처신 이 이와 같아서 오직 혹 교만하고 지나쳐서 스스로 겸허하지 못하고 가 득차서 위태롭고 패망하는 환난에 이르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른바 차면 오래 못간다는 것을 잘 알고 亢에 이르기전에 방지한다면 후회있을자가 후회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繫辭에 가로대

42) 文言 曰 亢龍有悔何謂也 子曰貴而先位高而天民賢人在下位而死輔是以動而有悔也 又曰亢之爲言也知進而不知退知存而不知亡知得而不知喪其唯聖人乎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其唯聖人乎(「退溪先生文集」 卷七(「增補退溪全書」, 一經筵講義條)

43) 臣謂人君勢位高亢苟不知進極必退存必有亡得必有喪之理至於亢滿則志氣驕溢 慢賢自聖獨知馭世不肯與臣下同心同德誠意交孚以共成治理膏澤不下於民北如陽氣亢極而不下交則陰氣無緣自上而交陽豈能興雲致雨而澤被萬物乎(經筵講義條)

지위가 위태할까 하는 자는 그 지위에 안심했던 자이고 망할자는 언제까지나 존속할 것이라 생각하는 자이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일찍이 잘 다스려졌던 상태가 지금도 있는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易이 가로되 망할까 망할까 하고 스스로 경계하여 이를테면 包桑과 같은데 매어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聖明께서는 항상 이를 경계하시어서 亢滿의 후회가 없게 하신다면 종사에 큰 다행이겠습니다”고 하였다.⁴⁴⁾ 퇴계선생은 이와같이 옛날의 현명한 君主는 “亢龍有悔”의 이치를 교훈삼아 항상 “貶抑降屈謙恭된虛”로써 道를 삼았다고 하고 “驕溢自滿”에 빠질까 오직 두려워하고 “차면 오래가지 못한다”(盈不可欠)는 것을 잘 알아서 亢이 되기전에 방지한 즉 후회할자가 후회가 없어진다고 하고 繫辭下傳第五章의 “子曰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 亂者 有其治者也”와 易曰 其亡其亡 繫于包桑⁴⁵⁾을 인용하여 君主가 항상 이경계를 잊지 말아서 亢滿의 뉘우침이 없게 하라고 하고 있다.

이 乾卦上九講義는 九二를 程朱와 달리 오로지 臣位를 말하고 있고 君主에게 九五의 卦辭가 아니라 上九의 卦辭 “亢龍有悔”를 들어 論하고 있는 바는 퇴계선생의 정치사상이 얼마나 높고 심오하며 탁월한 사상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선생의 聖學 사상은 위대한 정치철학의一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乾卦上九講義의 정치사상은 요컨대 君主의 最高의 德의 하나가 謙의 德 곧 謙遜의 德이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퇴계선생의 병세가 위독하게 되어 門人들이 집쳐서 謙卦 “君子有終”의 占辭를 얻었다고 한다. 年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先生 病勢已革 門人筮之得謙卦君子

44) 是以古之賢君深知此理常以貶抑降屈謙恭自虛爲道其自稱曰寡人曰 涼德曰予小子曰 目少予目少末予小子其自處如此惟恐或至於驕溢自滿而有危亡之患所謂能知盈不可久而防於未亢之 前則有悔者死悔矣 故繫辭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亂者有其治者也易曰其亡其亡繫于包桑伏願 聖明常持此戒不至於亢滿之悔宗社幸甚(「退溪先生文集」, 卷之七(「增補退溪全書」1) 經筵講義, 乾卦上九講義條)

45) 否卦 九五爻辭이다.

有終之辭”

謙卦의 卦辭는 “謙은 亨이니 君子有終이니라”이다. 이의 象辭는 다음과 같다. “象曰 謙亨은 天道 | 下 濟而光明하고 地道 | 卑而上行이라.

天道는 虧盈而益謙하고

地道는 變盈而流謙하고

鬼神은 害盈而福謙하고

人道는 惡盈而好謙하나니

謙은 尊而光하고 卑而不可踰 | 니 君子之終也 | 라.⁴⁶⁾

謙은 序卦傳에 所有의 큰것은 차서(盈)는 안된다. 그러므로 謙으로써 받는다고하여(謙, 序卦, 有大者, 不可以盈, 故, 受之以謙) 大有卦 다음에 謙卦오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程傳에서는 “其有既大不可至於盈滿必在謙 損故 大有之後受之以謙也”를 더 부연하여 “謙損”에 있어야 함으로 大有를 謙이 받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象辭에 의하면 謙은 亨通한다. 왜냐하면 陽氣가 내려와서 만물을 구제하며 빛나는 것이 天道이며 또 地道는 낮은 곳에 있으면서 陰氣는 항상 上行하며 陰陽의 기운이 교류하기 때문에 亨通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움직임은 찬 것(盈)을 반드시 이즈러지게 (虧)하고 차지 않는 것(謙)을 반드시 더하는 것(益)이 원칙이다. 달(月)이 차면 기울어진다(虧). 뿐만 아니라 陰陽의 消長이 또한 그렇다. 높은산은 그 흙이 유실되어 계곡으로 흘러 하천을 이루고 河床이 높아진다. 귀신은 교만한 자 禍를 주어 해롭게 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福을 준다. 人之常情은 교만한 자를 증오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겸손한 사람은 尊位에 있으면 그 德이 더욱 더욱 빛나고 설령 낮은 지위에 있어도 그 德이 높기 때문에 그 위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卦辭 君子有終의 理由이다.

퇴계선생은 또 “西銘考證講義”에서 易謙卦의 象辭中 “君子以裒多益寡稱物平施”⁴⁷⁾를 들어 겸손의 德을 강조하고 있다. 謙卦의 象辭는 “地中

46) 世昌書館刊, 「原本周易」에 의함.

47) 「退溪先生文集」卷七(「增補退溪文集」一西銘考證講義條)

有山이 謙이니 君子 | 以하야 裒多益寡하야 稱物平施하느니라”이다. 땅속에 산이 있는것이 謙이다. 낮은 땅속에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은 낮은 자세 속에 높은 德은 숨겨져 있는 것이 謙의 상징이다. 君子는 이 卦를 法삼아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을 더해서 사물을 헤아려서 고르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퇴계선생은 수많은 辭退願을 올리었다. 出處進退의 大義에 말미암은 것이지만 퇴계선생은 盛德大賢의 道學者이면서 辭免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몸소 謙의 德을 실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정치의 경험, 그리고 정치현실을 뛰어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정치와 道學은 이미 서로 용납하지 않게 된 것이다.

李相殷 교수는 퇴계선생의 사면을 請하는 근본동기가 學問愛好熱이라고 하였다.⁴⁸⁾

成樂熏 교수는 퇴계가 관직을 물러나기를 일삼음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그의 성질이 세속과 잘 화합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였다.⁴⁹⁾

퇴계선생은 “戊午辭職疏”에서 “옛 先王들이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지능을 헤아려 임무를 맡기므로 지능이 큰 이에게는 큰일을 맡기고, 작은 이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며, 크고 작은 일에 다 함당하지 않는 사람은 물리칩니다. 한 번 웃사람이 잘못 평가하고 그릇 등용하게 되어 선비된 자가 자기지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헤아려 사퇴하기를 청하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개 조정에서 인재를 그릇 쓰지 않음이 이와 같아 선비가 그 뜻을 행할수 있음이 이와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大臣은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지않고 小臣은 일도 많고 공연히 녹만 먹는 허물이 없게 되어 현명한 이가 그 자리에 앉고 능력있는 이가 그 직책을 맡습니다. 그리하여 충성심을 떨쳐 능력을 다하지 않는이가 없어 조정에선 좋은 정치를 이루게 되고 지능이 미치지 못

48) 前揭書, p. 61

49) 「韓國人物全集」 3, p.224, 三潮社, 1977

하는 자는 野에 물러가 있도록 허락하여 자기 분수대로 편안히 살며 제 노력으로 먹고 또한 禮儀廉恥를 지킵니다. 이것이 예적에 賢과 愚가 각기 제자리를 얻고 禮讓이 행해져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소치입니다.” 고하여 禮儀康恥를 지키는 것이 賢과 愚가 각기 제자리를 얻게되고 禮讓이 행하여지는 것이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소치라고 한다. 또 같은 疏에서 “……臣도 역시 臣을 아끼는 자는 적고 미워하는 자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臣이 외로이 이 한몸으로 못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썽을 당하게 되니 臣의 위태로움이 심하옵니다……”고 하고 “……고집만 부리고 못 사람의 비난과 의심속에 처하면서도 마음 바꿀줄을 모르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의리에 크게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일의 宜當함이 義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지 않은 채 하고 백승을 도둑질 하는 것……헛된 명성으로 세상을 속이는 것, 직무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정말 宜當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다섯가지의 宜當하지 못함을 가지고 조정에 선다면 신하된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벼슬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은 다만 義라는 一字를 성취하고자 할뿐입니다”고 하여 謙讓의 德과 義理가 表裏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戊辰辭職疏”에서 “德이 높고 지혜가 밝은 옛 임금들이 어진이를 높이고 선비를 임용하는 것을 급무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요즘의 임금들은 혹 한갓 어진이를 좋아하는 뜻과 善을 즐거워하는 정승이 있더라도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人品이 어떤가를 묻지도 않고 재주도 덕도 갖지 않는 사람을 그릇되게 초빙하고 헛된 이름으로 세상을 속이는 선비들에게 갑자기 높이고 禮로 대우하게 되니 곧 굽은자를 들여쓰고 바른 사람을 버리게 되어 만민이 不服하고 賢과 愚가 뒤섞여 국정은 날로 문란해지고 전날 賢人을 좋아하고 善을 즐겨하는 마음은 이를 말미암아 게을러지게 되어 마침내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해를 초래하여 어두운 임금과 어지러운 조정의 所爲와 한가

지로 되어 사방에 웃음거리로 전하고 천고의 꾸짖음으로 남게 되니 가히 신중을 다하지 않고 경솔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臣이 세상을 속이고 명성을 도둑질 한 죄는 어디로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臣欺世盜名之罪何所逃乎)고 하였다. 그리고 “…… 因山을 앞두고 머물러 기다릴 수가 없어서 前職이 사면되어 관직이 없는 틈을 타 경솔하게 鄉里에 돌아와 버렸습니다”고하여 出處進退의 大義에 廉恥尊重과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戊辰辭職疏二”에서 “程子가 前後벼슬을 사퇴한 것이 아홉번 벼슬에 나가지 않는 것이 세 번이요 朱子가 부르는 命을 사퇴한 것이 열 번 벼슬을 사퇴함과 당의 재촉(堂促)함을 사퇴한 것이 무려 오륙십 번이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여덟 번”이라하고 “그 분들이 義에 틀리는 것을 하였겠습니까. 진실로 사양하거나 받는데 있어서 예의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진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묻지 않는다면 그 본심을 잃어 도가 폐하여지므로 부득이 그러하였을 뿐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司馬光, 范鎮, 劉宰, 崔興之등이 모두 固辭한 것을 듣고 “君臣의 大義”를 잊은 것이 아니라고 변별하고 “臣이 오직 구구히 면할 뿐이오나……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어찌할수 없는지라 충심으로 스스로 맹서하기를……오직 그 지위에 처하지 않고 그 利를 享受하지 않는 것만이 可謂 万분의 일이라도 몸을 씻고 속죄함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신이 여러번 그릇 은혜를 입은 뒤에는 물러나 돌아가는 것을 義로 삼고 다시 반열에 나아가 힘을 다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옳습니다. ……사방과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작은 인재는 가히 큰 벼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늙고 병든 이에게는 직책으로 책망하지 않고 卿相의 지위를 가히 헛 이름으로 망령되이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어진 정치아래에서는 가히 한 물건도 각기 제 분수를 얻지 못할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여 주시면 거룩한 덕과 큰 은혜는 신이 마땅히 사방의 만 백성과 함께 그 은덕의 흠족한 것을 함께 하고 감히 사사로이 한 몸만의 다행으로 여기지는 않겠사옵니다.”고 한다.

乾卦上九 文言에는 亢之爲言也 知進而不知退하며 知存而不知亡하며 知得而不知喪이니 其唯聖人乎아 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者 其唯聖人乎 ㄴ저“고 하고 있다.

퇴계선생은 겸손의 德을 존귀한 德으로 보았거니와 몸소 실천하였음을 알수 있다. 선생은 70세에 서거하였다. 그리고 終命은 儒家의 이상적인 죽음의 一例이다. 年譜에는 宣祖 3年 庚午年(1570) 正月부터 12月8日 辛丑日 임종까지의 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2月 4日 丁酉日에 從子 甯에게 命하여 遺戒를 쓰게 하였다. 첫째는 禮葬을 사양하고 둘째는 비석을 세우지 말고 단지 조그만한 돌에다 그 前面에는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기고 그 後面에는 간략하게 鄉里와 조상의 내력과 志行 出處를 朱子家禮에 맞게 쓰라.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짓는다면 奇高峰같은 나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사실에 지나치게 과장하여 세상 사람의 웃음거리가 될터이므로 나는 내 손으로 나의 뜻한 바를 自述하려고 먼저 銘文만을 지었고 그 나머지는 이력저력하다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초고가 여러 초서속에 함부로 섞이어 있을 것이니 찾아 내거든 그 銘文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둘러 설터이니 너의 行喪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다르니 모든 일을 반드시 禮를 아는 有識한 사람에게 물어서 해야 오늘날의 禮에도 맞고 옛 법도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나머지는 집안 일을 처리하는 것 두어 가지였다⁵⁰⁾고 한다.

III. 聖學政治思想

1. 戊辰六條疏의 정치사상

戊辰六條疏는 퇴계가 즉위한 지 얼마되지 않는 십칠세된 宣祖에게 箴이 되게 올린 것이다. 때는 퇴계 68세(1568년) 戊辰年 8월이었다. 위

50) 「退陶先生言行錄」卷之七(「增補退溪全集」4)年譜下條.

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이 때에도 정치는 治亂의 연속과정에서 小人의 음모의 消長은 다를 바가 없었다.

六條의 첫째는 계통을 중히 하여 仁孝를 온전하게 할것(一曰重繼統以全仁孝)⁵¹⁾

효는 百행의 근원이니 한가지 行이라도 흠이 있으면 純孝가 못되며, 仁은 萬善의 長이니 한가지 善이라도 不備함이 있으면 全人이 못되는데 예로부터 人君은 누구나 지대·지중한 君位의 一統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지대·지중한 뜻을 잘 아는 사람이 적어 孝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있고 仁으로서는 道를 다하지 못한 자가 많다. 정상의 경우에 처신함이 오히려 그러하거나 或旁支로써 入繼한 군주로서는 인효의 도를 다하는 자가 더욱 적다고 한다.

또 옛 성인이 本生의 恩이 중대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법을 제정하여 양자하여 아들로 삼으니, 이미 그의 아들이 되었다면 곧 인효의 도는 마땅히 養家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요 本生의 은혜는 도리어 이와 더불어 병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이 義을 잡아 본생의 은혜를 줄이고, 은혜를 높여 後된 義를 완수하게 하였다.(是以聖人秉義以殺本生之恩 隆恩以完所後之義)고 하고 私意에 의해서 旁支로 入繼하고 천명을 받아 寶位에 오를 때 종사의 부탁과 백성들의 받들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란 반 위에 물을 엮지르지 않는 것보다 어렵고 착함은 바람 앞에 촛불 보전하기 보다 어려운 것이며, 옛말과 같이 나무가 썩으면 벌레가 생기고 효도하는 마음은 妻子 때문에 쇠하여 진다(心難至於 盤水善難保於風燭古語云木腐而蟲生孝妻衰於子).

지금의 仁愛의 마음과 孝順의 행실은 순수하지만 다른 때에 이목을 가리는 것이 잡다하게 닥치고 愛憎의 흔들림과 유혹됨이 아울러 일어나서 날이 지남에 일에 소홀하고 情에 끌리게 되면 그때 殿下의 마음이 능히 밖으로 부터의 변화를 받지 않고 심중에 변함없이 그날같이 卓然

51) 「退溪先生文集目錄下」 卷第六(「增補退溪全書」 1) 疏條.

히 선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경계하고 있다.

요컨대 옛부터 入繼하는 군주의 彝倫之教에 得罪하는 까닭이 마음에 귀결된다. 마음은 盤 위의 물을 엿지르지 않는 것보다 어렵고 선함은 風前의 촛불을 보전하기 보다 어려우니 聖王의 定法과 先儒의 定倫인 天理인륜의 極致를 털끝만한 私意도 배제하여 마음씀을 은혜를 높이고 의를 잡아 全仁 그리고 純孝되게 하라고 경계하고 있다. 효는 백행의 근원이니 한가지 행이라도 흠절이 있으면 純孝가 못되며 仁은 萬善의 장이니 한가지 خوبی라도 不備함이 있으면 全인이 되지 못한다.⁵²⁾

둘째는 참소와 이간질을 막아서 兩宮을 친근하게 할 것(其二曰杜讒間以親).

효와 慈의 도는 천성에서 나와서 衆善의 으뜸이 되며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인륜이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이 가장 절실하다고 하고 지극히 깊은 은혜를 가지고 지극히 무거운 인륜에 따라 가장 절실한 정을 행하는 것이니 사리로 보아서는 마땅히 극진히 다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하지만 혹 효도가 이지러짐이 있고 자애하는 천성이 또한 없어지는 데에 이르러 심한 자는 至親이 사랑이 되어 돌보지 아니함이 있으니 보통사람들도 진실로 이것을 면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帝王의 가정에 있어서 이러한 근심이 더욱 많은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릇 정세가 막히기 쉽고 참소와 이간이 더욱 많은 까닭이다. 궁전이라고 하는 곳은 엄하고 날마다 나아가 뵈기에 事勢가 혹 막히고 일은 복잡다단하여 情이 혹 막히고 뭉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세가 막히기 쉽다는 것이오, 참소와 이간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兩宮 사이에는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는 환관과 여자들이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들의 성격이 대체로 음흉사악하고 교활하여 간사함을 끼고 사사로운 생각을 품어 亂을 좋아하고 禍를 즐기며, 孝慈가 무엇인지 예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섬기는 일만을 소중히 여겨 서로 勢를 갈라 대립하여 많은 것을 다투고 적은 것을 비교하고 은혜와 원망이 잠깐 사

52) 上同

이에 생기며, 利害가 이들의 向背에 따라 결정되며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하며 情狀이 만가지로 나타나 귀신이나 불여우와도 같이 혹은 激하여 怒하게도 하고 或은 속여서 무섭게도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것에 귀를 기울여 믿게 되면 자연히 불효가 되어 어버이를 不慈에 빠뜨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대개 집안 법도가 바르고 兩宮이 화락하면 이 무리들이 간사한 꾀를 쓸 여지가 없고 만드시 서로 構陷하고 서로 시기하여 주인이 어둡고 倫常이 어긋난 다음에야 그 꾀를 부려 참소가 행해지는 바 이것이 소인과 여자의 通患이다.⁵³⁾

요컨대 人君의 자치여하에 달려 있으니 군주는 “履霜”의 戒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坤卦 初六의 爻辭 “履霜하면 堅氷이 至하느니라”라고 하는 경계는 象辭 “履霜堅氷陰始凝也馳致其道至堅氷也”와 같이 음기가 처음 응고된 것이 서리(霜)이다. 음기가 성한 때는 물이 얼어서 견고한 얼음이 된다. 서리를 밟는 계절이 되면 곧 견고한 얼음이 언다. 소인은 미미하나 자라나서 점점 성하게 되며, 邪惡의 움직임은 처음은 미세한 것이라도 버려두면 큰 악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易의 姤卦, 初六의 爻辭 “羸豕蹢躅”과 “家人卦”의 뜻을 거울로 삼고 소학의 明倫의 訓을 법으로 삼아 자치를 엄하게 하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사상은 “修齊治平”의 유교정치의 목표를 보아서 매우 간절한 陳言이며 군주의 “心之德”을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할 것이다.

세째는 聖學을 돈독히 함으로써 정치의 근본을 삼을 것(其三曰敦聖學以立治本).

帝王學은 그 心法의 요점이 大舜의 禹에게 명한 말에 淵源 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인심은 惟微 하니 惟精惟一하여야 允執厥中하리라⁵⁴⁾ 하였다.

53) 上同.

54) 여기에서 十六字의 뜻을 살펴보기로 한다. 「論語」에는 “堯舜이 가라사대 睿者 그대 舜아 하늘의 帝王 교체의 차례수가 그대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알맞은 것을 잡아라(성실하게 中庸의 도로써 정치하라.) 四海가 곤궁하면 하늘

대저 천하로써 서로 전할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부탁하는 말이 정치에 있어서 이 보다 더 급한 것이 없거늘 舜이禹에게 정중히 타이름이 이와 같은 말에 지나지 아니 하였으니 이 어찌 학문을 하여 덕을 이루는 것으로써 정치의 大本을 삼을 것이 아니겠는가? 精一執中은 학문하는 큰 법이니 대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옛 성인의 말씀이 이러하니 성학이 至治의 근본(聖學爲至治之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舜의 이 말은 위태롭고 微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만 말하고, 그 위태롭고 微하여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精一만 가르쳐 주고 精一하는 법을 보여주지 아니하여 뒷 사람들이 이에 의거하여 도를 진실로 알고 실천하려고 하여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列聖이 서로 계승하여 공자에 이르어 그 법이 크게 갖추어지니 大學의 格至誠正과 中庸의 明善誠身이 그것이다.

의 녹이 영원히 끊어지리라.”(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其中 四海困窮天祿永終 堯曰第二十)하고, 「書傳」에는 “人心은 오직 위태하고 道心은 오직 적으니(미미하여 드러나지 않으니) 오직 정미롭고 오직 한결같이하여(道心과 人心의 구별을 정미롭게 살피서 양자를 혼동하지 말고 道心이 人心을 지배하는 마음의 본래상태를 한결같이 지켜가야) 진실로 그 中道를 잡으리라.”(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 大禹謨)의 주석을 해석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知覺이니 속에 주장하여밖에 응하여 준다. 그 마음이 형용과 기운에 발한 것을 人心이라고 하고, 그 義理에 발한 것을 道心이라 한다. 인심은 사사롭기 쉽고 공변되기 어려운 고로 위태하고, 도심은 밝히기 어렵고 어두워지기가 쉬운고로 미미한지라. 그러므로 정미롭게 살피서 형태와 기질의 사사로운 마음을 쫓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지켜서 의리의 바른대로 순전히 나아가서 도심이 항상 주장이 되고 인심은 도심의 명령을 들으면 인심의 위태로움이 평안해지고 도심의 微한 것이 나타나서 動靜과 언행이 자연히 過不及의 差가 없어져서 진실로 능히 中道를 잡을 수 있다. 堯임금이 舜임금에게 고하는데 다만 그 中道만 잡으라고 한데, 이제 舜임금이禹임금에게 또 그 所以를 미루어 나가 자세히 일러준다. 대개 옛 聖人이 장차 천하로써 남에게 줄 때 일찌기 그 다스리는 방법을 아울러 전하지 아니 하지 않았다. 經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으니 이 뒤의 人君이 이것을 생각하고 공경스럽게 지키지 아니하여서야 되겠는가?

그 위에 유학자들이 일어나 주자에 이르러 그 학설이 크게 밝혀졌으니 대학과 중용의 章句와 或問이 이것이다. 이제 이 두 책을 배워 眞如 실천의 학문을 하면 중천에 해가 뜬 것 같아서 눈을 뜨면 다 보이고, 큰 길이 앞에 놓인 것 같아서 발을 들면 밟을 수 있으나, 人君으로서 능히 이 학문에 뜻을 두는 경우가 적고 뜻을 두더라도 능히 시작이었고 끝맺음이 있는 이는 더욱 드물다. 이것이 道가 전하여지지 않는 까닭이며 정치가 옛과 같지 못한 까닭이라고 陳言한다.

요컨대 致知와 역행의 並進이 聖學政治사상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먼저 치지에 대하여 이렇게 진언한다. 나의 성정과 형색(형체, 용모와 육체적 기능)과 일상생활의 뒤편한 윤리의 가까운 것으로부터 천지 만물과 古今事變의 허다한데 이르기까지 진실한 이치와 지당한 법칙이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른바 天然自有的 中이다. 그러므로 博學, 審問, 慎思, 明辨치 아니할 수 없으며 이 네가지는 치지의 조목인데 이 중에서도 慎思가 더욱 소중하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마음에 求하여 증험이 있고 얻음이 있는 것을 말한다.⁵⁵⁾ 능히 마음에 증험하여 그 理와 欲, 선과 악의 기미와 義와 利, 是와 非의 판별을 밝게 가려서 精微롭게 연마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으면 危微의 까닭과 精一의 방법을 잘 알게 된다.⁵⁶⁾

이 네가지의 누적한 공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절차와 조목은 或問에 자세히 있다. 그에 따르면 敬으로써 주요한 방법을 삼고 事事物物에 있어서 그 所當然과 所以然의 까닭을 궁구하지 않음이 없으며 沈潛반복하고 玩索體認을 극치에 이르게하여 오랜 세월에 功力이 깊어지면 일조에 모르는 사이에 의혹이 석연히 가시게 되고 시원하게 관통하는 바가 있게 되니, 이때에 비로소 體와 用이 한 근원이요 顯과 微가 틈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危와 微에 혼미되지 않고 精一에 현혹되지 아니하여 집중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眞知라고 한다.⁵⁷⁾

55) 思者何也求諸心而有驗有得之謂也.

56) 能驗於心而明辨其理欲善惡之幾義利是非之判 無不研精無少差謬則所謂危微之故精一之法可以眞知其如此而無疑矣.

다음은 力行에 관한 진언이다 誠意는 반드시 幾微에 살피서 터럭 만큼의 불실도 없게하고, 正心은 반드시 動靜에 살피서 한가지 부정한 일이라도 없게하고, 修身은 한가지라도 편벽된 데 빠지지 않도록 하고, 齊家是 하나라도 편벽되게 치우치지 않도록하여 戒懼謹獨하고 強志不息하는 이 몇가지가 역행의 절목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心과 意가 가장 관계가 깊다. 마음(心)은 천군이며 意는 그 發한 것이다. 먼저 그 發하는 바를 성실히 하면 그 한가지 성실로써 만가지 거짓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니 천군을 바로 잡으면 人驗의 모든 기관이 그 명령에 복종하여 행동하는 바가 성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⁵⁸⁾ 이와 같은 공부의 그 규모와 宗旨는 「大學或問」과 「中庸或問」 두책에 보이는 바, 그 교훈에 따르면 敬을 주로 하여 隨時, 隨處에 생각할 때마다 잊지말고 얼마나 조심하여 만가지의 더러움과 모든 욕심이 마음 속에서 씻어지고 五常과 백행이 至善으로 연마되고 먹고 쉬는 동안과 다른사람과 수작하는 때에도 의리가 몸에 배이고 懲忿窒慾과 改過遷善을 정성되고 全一한 데로 힘을 쓰고 광대, 高明하되 예법에 떠나지 않고 至誠의 덕을 갖춘 聖王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성과 덕행을 지님으로 인심과 물정을 다 알고 그 처리를 합당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천지만물을 生長化育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와 더불어 병립하며 셋이 될 수 있으며, 천하의 大經과 경륜 곧 정치에 있어서 오류의 대법을 잘 계획하고 실시하되 不愧於屋漏 곧 사람이 못보는 것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데에 근원하도록 하여야 한다.⁵⁹⁾

57) 因其發端而益致其積累之功其次第節目依或問所示之詳敬以爲主而 事事物物莫不窮其所當然與其所以然之故沈潛反覆玩索體認而極其至至於歲月之久功力之深而 一朝不覺其有洒然融釋豁然貫通則始知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者真是其然而不斷於危微不眩於精一而中可執此之謂真知也.

58) 誠意必審於幾微而無一毫不實正心必察於動靜而無一事之不正 修身則勿陷於一辟齊家則毋狃於一偏戒懼而謹獨強志而不息數者力行之目也而數者之中心意爲最關心爲天君而意其發也 先誠其所發則一誠足以消萬僞以正其天君則百體從令而所踐無非實矣.

59) 規模宗旨遵二書所垂之教敬以爲主而隨時 隨處念念提撕件件兢業萬累衆欲洒灑於靈

이와 같이 참된 공부를 쌓아 시일이 오래되면 자연히 義가 精해지고 仁이 익숙하여 그만 두고저 하여도 그만 들수 없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현의 中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그 실천의 효험이 여기에 이르면 道가 이루어 지고 德이 서게 되니 정치하는 근본이 여기에 있다. 사람을 취하는 법칙은 과연 자기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 자신이 바르면 저절로 群賢이 함께 나오고 공적이 크게 빛나 세상을 융성하고 태평하게 하며 백성을 仁壽의 경지에 인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⁶⁰⁾

이 학문은 글귀에 얽메이고 詞章에만 힘쓰는 것과는 달리 敬으로 근본을 삼고 이치를 궁구하고 致知하여 몸에 돌이켜 참됨을 실천하는 데 이르러서는 묘한 心法이며 道學을 전하는 요체인데 제왕과 常人이 다를 것이 없다. 眞知와 실천은 수레의 두바퀴와 같아서 하나가 없어도 안되며 사람의 두 다리가 서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으므로 程子是 致知하고서 공경함에 있지 아니함은 없다(程子曰未有致知而不在敬者)고 하였으며, 주자는 躬行함에 공부가 없으면 理를 궁구할 곳도 없다(朱子曰若躬行上未有工夫亦無窮理處)고 하였다.

위태로운 것이 인심이라 歡에 빠지기 쉽고 理에 돌아가기 어려우며, 微한 것이 道心이라 잠깐 理에 눈을 뜨다가도 歡에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에 人主의 學이 대개 시작이있고, 終이 없거나 始에 부지런하고 終에 게으르며, 始에 조심하고 終에 放肆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여 마침내 德을 멀하고 나라는 그르치는 결과가 되는 자가 많으니 帝王相傳이 執中の 實을 성취시키려면 精하게 하고 一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무엇으로써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⁶¹⁾

臺五常百行磨礪乎至善食息西州醉而涵泳乎義理懲窒遷改而懋勉乎誠一廣大高明不離於禮法參贊經綸皆原於屋漏。

60) 如是積眞之多歷時之久自然義精仁熟欲不罷能而忽不自知其入於聖賢中和之域矣 其實踐之效至此則成德立而爲治之本於是乎在取人之則果不外身自見群賢彙征績用咸熙措世於隆乎納民於仁壽有不難矣。

61) 成就於帝王相傳執中之學非精之一一之之功何以哉。

그래서 부열의 말과 易乾卦文言傳을 인용하여 第三條의 끝을 맺고 있다. 전설은 말하기를 “學은 뜻을 겸손하게 하고 시종 끊임없이 배움을 생각하면 그 德이 모르는 사이에 닦여진다”(傳說曰惟學遜志念終始典于學厥德修罔覺)고 하고, 공자는 “이를 데를 알아서 이르면 가히 더불어 幾할 것이며 마칠 데를 알아서 마치면 가히 더불어 義를 보존할 수 있다”(知至至之可與幾也知終終之可與存義也)고 하였다.

네째 道術을 밝혀 인심을 바로 잡을것(其四曰明道術以正人心)

唐虞 삼대의 盛世에는 도술이 크게 밝아 다른 기로에惑됨이 없었으므로 인심이 바르고 정치와 교화가 행하기 쉬웠으나 주나라가 쇠약하게 된 이후로는 도술이 밝지 못하여 사특한 학설이 아울러 일어나 인심이 바르지 못하여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고 교화시키려 하여도 교화하기 어려웠다⁶²⁾고 하고, 도술이란 천명에서 나와서 彝倫에 대하여 천하와 고금이 같이 말미암는 길(何謂道術出於天命而行於彝倫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이라고 한다.

堯舜禹 삼왕은 이것을 알고 그 位를 얻었으므로 혜택이 천하에 미치고, 孔·曾·思·孟은 이것을 알지만 位를 얻지 못하여 가르침이 만세에 전하였다. 중간에 宋代諸賢들이 이 道를 크게 천명하여 만세에 전하였으며, 우리 동방은 箕子의 洪範이 전함을 잃어버리고 알 수 없다가, 려말에 程朱의 글이 처음 이르러 도학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도술을 밝히고 인심을 바로 잡음으로써 新政의 獻策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밝히는 일(其明之之事)에 있어서도 또 本末先後緩急의 施策이 있고 그 本末에 또 虛實의 다름이 있으니 인군의 躬行心得한 것에 근본하여 민생의 人倫日用의 교화에 행하는 것이 본이요 남의 법제를 따르고 문물의 걸치래나 하고 現行의 것을 옛것으로 고치어 모방하고 비교하는 것이 末이다. 本은 먼저 할 바이니 급한 것이요, 末은 천

62) 唐虞三代之盛道術大明而無他岐之惑故人心得正而洽化易洽也 衰周以後道術不明而邪慝並興故人心不正治之而不治化之而難化也(戊辰六條疏其四)

천히 하여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도를 얻어 君德이 이루어지면 본말이 다 唐虞의 治가 되고 그 도를 잃어 君德이 그릇되면 본말이 모두 虛하여 말세의 禍가 되는 것이니, 虛名을 믿지 못할 것을 알고 요법을 구하여 도학을 밝히려고 한다면 既述한 眞知와 실천의 說을 깊이 명심하시어 敬으로써 시작하고 敬으로써 끝을 맺을 것을 진언한다.⁶³⁾

그리고 당시 人心이 부정한 상태와 그 요인은 이러하다. 이단의 해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老莊의 虛誕은 가끔 즐겨 숭상하여 성인을 모독하고 예의를 멸시하는 풍습이 더러 일어나며, 管仲商鞅의 術은 요행히 傳述되지는 않았으나 공리를 계획하고 이익을 피하는 폐단은 오히려 고질이 되고, 鄉原의 덕을 어지럽히는 습관은 보잘 것 없는 무리들이 세속에 아부하는데에서 시작되고, 俗學의 方向昏迷의 폐환은 과거 보는 사람들의 名利追逐에서 더욱 심하여졌다. 하물며 名利를 찾고 仕宦을 구하는 길에 있어서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하였다가 저렇게 하고 속이며 저버리는 무리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다.⁶⁴⁾

자고로 인군이 처음엔 청명하여 그 정치가 불만 하다가도 얼마 뒤에는 간사한 무리들에게 떨어지는 바가 되고 이단에 미혹하여 功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치는 자가 많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도를 잃은 것을 밝은 거울로 삼아 뜻을 굳게 잡고 시종일관하여 변하지 말고 도를 日月같이 밝히고 요기를 숙청하여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講道와 求治를 막론하고 꾸준히 하여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선비와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백성이 다 大道에 오를 뿐 아니라 전날의 사악한 무리와 간특한 잡배들도 또한 장차 신화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라고 易의 恒卦 豕辭中 “성인이 그 도에 오래 있으면 천하가

63) 誠能知虛名之不可恃求要法以明道學請必深納於臣前所論眞知實踐之說敬以始之敬以終之。

64) 東方異端之害……餘皮遺燼尙有存者 老莊之虛誕或有耽尙而侮聖蔑禮之風間作管商之術業幸無傳述而計功謀利之弊猶錮鄉原亂德之習濫觴於末流之媚世俗學迷方之患燎原於學子之逐名而 況名途宦路乘機抵巇反側欺負之徒亦安可謂盡無也(戊辰六條疏其四)

화한다”(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는 구절과 「맹자」 盡心章의 “군자는 常道에 돌아 갈 뿐이다. 常道가 바르게 되면 서민이 일어나고 서민이 일어나면 이에 사특함이 없을 것이다”(君子反經而已矣經正則庶民興斯無邪慝矣)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끝은 맺는다.

다섯째 腹心을 미루어 이목을 통할 것(其五曰推腹心以通耳目)

한 나라의 國體는 사람의 身驗과 같다. 사람의 몸에서 머리(元首)는 위에 있어서 통솔하여 임하고 배와 가슴(腹心)은 가운데에서 이어받아 운영하고 귀와 눈은 두루 통달하여 호위하여 깨우쳐 주니 그런 뒤라야 일신이 편안할 수 있다.⁶⁵⁾

임금은 한 나라의 원수요, 대신은 그 복심이요 臺諫은 그 이목이다. 이 삼자가 서로 기다려 서로 이루는 것이 나라를 가지는 불변의 常勢요 천하고금에 다 아는 바이다.⁶⁶⁾

인군으로서 대신을 신임하지 않고 臺諫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람이 그 복심을 스스로 꿰으며 그 이목을 스스로 막는 것과 같으니 머리만으로 홀로 사람이 될 리가 없다. 신임하더라도 신임이 도에 따르지 않고 구함이 능히 잘못을 바로잡아 선으로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匡濟輔弼) 賢者를 구하지 않고, 오직 아부하고 잘 순종하는 자를 구하여 그 사사로운 일이나 이루려고 하니 이렇게 해서 얻은 자는 간사하고 정치를 어지럽히지 아니하면 반드시 흉악하여 권력을 擅斷하는 사나이가 되어 버린다. 임금이 이런 욕심을 만족시킬 사람을 복심으로 삼고 신하는 이런 임금으로써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원수로 삼아서 위와 아래가 서로 가리우고 서로 결탁하여 아무도 능히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된다. 한 硬直한 선비가 있어서⁶⁷⁾ 칼날을 건드리면 반드시 귀양보내고

65) 一國之體猶一人之身也 人之一身元首居上而統臨腹心承中而幹任耳目旁達而衛喻然後身得安焉(戊辰六條疏其五)

66) 人主者一國之元首也而大臣其腹心也臺諫其耳目也 三者 相待而相成實有國不易之常勢而天下古今之所共知也.

67) 古之人君有不信任大臣不聽用臺諫者譬如人者決其腹心自塗其耳目固無元首獨成人之理其或有信任大臣不由其道其求之也不求其能匡濟輔弼之賢而惟求其阿諛順旨者以謀遂其私是所得者非姦邪亂政之人則必兇賊擅權之夫君以此人爲濟欲之腹心臣

죽임을 더하여 양념과 가루를 만들고 만다. 이 때문에 충신과 현인은 다 쫓겨나서 나라 안이 텅 비게 되고耳目의 司職은 모두 當路者의 私人이 되어 버리니 이른 바 이목이란 것이 원수의 이목이 아니라 當路者의 이목이 된다. 이에 이르러 이목을 빙자하여 세력을 고취하고 기염을 부채질하여 權臣의 악을 편들어 주면 복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쌓이고 화가 쌓여 마침내 어두운 임금에게 사특하게 하고서는 오만하게 각자 자기 욕심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원수의 毒氣가 복심에서 발생하였고 복심의 毒虫이 이목에서 기원한 것인 줄을 모른다⁶⁸⁾고하여 복심과 이목의 職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며 匡濟輔弼의 현자를 구하여야 하고 도에 따라 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군주가 닦아야 할 덕을 진언하였다.

또 易의 乾卦 九五爻의 문언중 “同聲相應，同氣相求，水流濕，火就燥 雲從龍，風從虎”를 인용하여 聖主가 있으니 賢臣이 없을 것이 염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주는 오직 하늘의 밝은 명을 돌아보고 몸을 공손히하여 南面의 자리를 지켜 정성을 복심에까지 미루고 눈을 밝히고 귀를 통달케 하여 백성에게 中을 세우고 위에서 표준을 세우시어 一毫의 사사로운 뜻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흔들지 못하게 하면 輔相의 지위에 있는자는 반드시 모두가 마음을 털어 놓고 생각하는 바를 임금에게 말하고 계책을 진술하며 도를 의논하여 나라를 경륜하는 것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게 될 것이요. 體諍의 列에 있는 자도 누구나 다 면대하여 꺾고 조정에서 다투며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잃은 것을 줍는 것으로 자기의 직책으로 삼을 것이다.⁶⁹⁾

以此君爲濟欲之元首上下 相蒙締結盤固人莫能間而一有硬直士

68) 觸犯其鋒則必加之竄謫誅戮爲齏(양념할제) 爲粉而後已焉由是忠賢盡逐國內空虛而耳目之司皆爲當路之私人矣則所謂耳目者 非元首之耳目也乃當路之耳目也於是馮耳目而鼓勢煽焰以黨助權臣之惡由腹心而積戾稔禍以蓄成闇主之慝侈然自以爲各得所欲而不知元首之鴆毒發於腹心腹心之蛇蠍起於耳目也.

69) 唯當顧諟天之明命恭己南面推誠 腹心明目達總建中于民建極于上不以分毫私意撓壞於其間則居輔相之位者必皆以沃心陳謨論道經邦自任處諍諍之列者無不以面折廷爭

三勢가 일치하여 精을 모으고 神을 통해서 일체가 되면 조정에는 善政, 나라에는 善治가 있게 되고 세상이 隆平하게 된다.⁷⁰⁾

益이 舜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근심 없을 때 경계하여 법도를 잃지 말고 편히 놀지말며 지나치게 즐기 말며 어진이에 맡기면 의심치 말고 나쁜이를 내치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하였다. 임금 마음이 한번 경계를 佚樂에 빠지면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여 법도가 뒤따라 무너질 뿐 아니라 어진 이도 끝내 맡겨 쓰지 못하고 간사한 자를 능히 버리지 못할 것은 事理와 形勢의 필연의 귀결이다.⁷¹⁾

그러므로 비록 편안히 잘 다스려지는 조정이라도 혹 불행히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大臣은 반드시 임금의 악한 것에 영합하여 국권을 도적질할 것을 피하려는 자가 있고 小臣은 반드시 세력있는 자에 아첨하여 자기의 사리를 탐하려는 자가 있어서 마침내 前日의 복심이 변하여 이제는 도적이 되고 前日의 이목이 변하여 이제는 소경이나 귀머거리가 되게 하며 전날의 한몸이 變하여 이제는 胡越이 되어 衰亂의 형세와 위태롭고 망할 사태가 목전에 당도한다. 臯陶의 노래에 이르기를 “원수가 煩碎하면 股肱이 게으르고 萬事가 타락한다.” 만사가 타락하는 책임은 원수에 있다. 송나라 신하 王介之는 말하기를 “재상으로서 宮禁의 意向을 받들며 給舍로서 재상의 風旨를 받들게 되면 조정의 기강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 뜻은 邪經의 害됨이 복심이나 이목의 지위에 따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呂公弼의 仁宗에게 諫한 말에는 “諫官은 이목이 되고 執政은 股肱이 된다. 股肱과 이목은 반드시 서로 用이 되어야 온 몸이 편안하고 원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邪經을 밝지 않고 서로 用이 되는 것이 至善의 道라고 한다는 것이다.⁷²⁾

補闕拾遺

70) 三勢洞然聚精會神通爲一體若是而朝無善政國無善治世不致隆平者

71) 益之戒舜曰儆戒無虞罔失法度 罔遊于佚罔淫于樂任賢勿貳去邪勿疑人主之心一怠於儆戒 而流於佚樂則法度之壞不佚終日而賢之不終任 邪之不克去亦理勢之必然也.

72) 故雖以治平之朝其或不幸而一有此兆則大臣必有逢君之惡以圖竊國柄者小臣必有寧媚於掩以規饜已利者遂使前日之腹心今變爲寇攘前日之耳目今變爲蔽蒙前日之一體今變爲胡越而衰亂之形危亡之事不待他時而立見於前矣臯陶之歌曰元首叢脞哉股肱

여섯째, 修省을 정성스럽게하여 하늘의 사랑을 받을것(其六曰誠修省以承天愛)

군주는 천심이 군주를 사랑하는 까닭과 군주가 천심을 받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깊이 생각하고 익히 강구하여 참되게 驗行해야 거의 천심을 받들고 君道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천지의 大德은 生인 바 천지사이의 生을 먹음은 類가 부지기수이나 특히 사람은 형상이 닳았고 最靈하며 천지의 마음(心)이 되어 있는 것이니 그 인애가 매우 크다. 하늘은 이 마음은 있어도 스스로 베풀지 못하고 반드시 最靈한 가운데도 그 聖哲한 元良으로서 덕이 신과 사람에 화협한 자를 돌보아 임금으로 삼고 백성들을 맡아 기를 것을 부탁하여 그 인애의 정치를 행하는 것이다.⁷³⁾

이미 명하고 도와주고 사방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나 그래도 혹 태만하여 경솔한데서 환란이 생길까 염려하여 이에 또 이른바 災異와 警譴의 加責이 있다.⁷⁴⁾

천명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에서 매일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 조금도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능히 이렇게 되면 평일에 반드시 마음을 잡고 몸을 삼가고 바르게 하여 능히 공경하고 정성을 다 함으로써 상제를 받들어 빛나게 함이 극진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災譴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허물을 반성하고 政事를 닦아 능히 근신하고 성실함으로써 天意를 감격시킴에 더욱 마음을 쓴다. 그렇게 되면 정치가 문란하여 지지 않고 바로잡히고 나라가 위기에 이르지 않게 安保될 것이니 실패없이 안전함을 여기서 이룰 수 있다. 오직 천심을 모르고 그 志를 삼가하지 않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와 반대로 한다. 그래서

愴哉萬事墮哉言萬事之墮責在元首也宋臣王介之言曰宰相而承宮禁意向給舍而奉宰相風旨朝廷紀綱掃地矣言邪徑之爲害無異於復心耳目之地也至呂公弼之諫仁宗則曰諫官爲耳目執政爲股肱股肱耳目必相爲用然後身安而元首尊故臣以爲不由邪徑而能相爲用至善之道也。

73) 天有是心而不能以自施必就夫最靈之中而尤眷其聖哲元良德協于神人者爲之君 付之司牧以行其仁愛之政

74) 旣命之佑而綏寵四方矣猶恐其或怠而難生於所忽也於是乎又有所謂災異警譴之加焉。

상제가 진노하여 禍敗를 내리는 것이니 이는 하늘이 부득이해서 하는 것이니 그 또한 매우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있다.⁷⁵⁾

군주는 上敬下恤하고 수덕하여 정치를 하되 인심에 거슬리거나 상제에 죄 지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天變이 자주 일어나고 재앙이 함께 생겨 和氣가 응하지 않아서 보리농사가 전멸되고 水災가 옛날에 비할 수 없이 참혹하며 風災와 우박과 메뚜기와 머루의 재앙 등이 수없이 나타나니 上天이 군주에게 무엇을 怒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天心이 군주를 사랑함이 깊고 경계함이 지극한 때문이며 天道는 멀지만 실은 가까운 것이며 天威는 至嚴하며 장난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⁷⁶⁾

만약 晏然한 窮愛가 있는 줄만 알고 赫然한 위엄이 있는 줄은 모르면 恐懼하는 마음이 날로 해이해지고 邪僻한 情이 도리어 放肆하여 강물이 뚝을 터놓은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해를 내려 謹告해 놓고 怪異를 내려 警懼하게 하는 것이니 天心의 군주를 仁愛함이 深切하고 저명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⁷⁷⁾

그러므로 군주는 하늘에 대하여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것과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노함이 있으면 자식은 恐懼修省하여 노하고 노하지 않은 바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모든일을 다 정성껏 하고 효도를 다하면 아버지는 그 誠과 孝에 기뻐하여 怒하던 일 마저 함께 渾化하여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다.⁷⁸⁾

75) 其必能知天命之不易矣其必能知高高在上而日監于茲不容有毫髮之可欺矣能如此則在 平日必有以秉必飭躬克敬克誠以昭受上帝者 無不盡其道矣其遇災謹必有以省愆修政克慎克實以感格天意者益能盡其心矣夫然則制治于未亂保邦于未危有平安而無禍敗可幾也惟其不知天心而不慎厥德者 一切反是故帝乃震怒而降之禍敗非天之所得已也其亦可畏之甚也.

76) 凡所以上敬下恤修德行政之間未嘗有招拂于 人心獲戾于帝事者然而乾文履變時孽並作和氣不應兩麥全耗水災之慘振古所無風雹蝗衆異畢見不知上天所怒於殿下而如此哉天道雖遠而實邇天威至嚴而難玩小臣愚昧不敢妄度而爲言竊以仲舒之言推之此乃天心仁愛殿下之深而威警殿下之至也

77) 李相殷譯解, “戊辰六條疎”『퇴계학보』 제2輯, 퇴계학연구원, 1974, 및 「국역 퇴계집」 I, 고전국역총서, 참조

군주는 어버이 섬기는 마음을 미루어 하늘 섬기는 도를 다 하시어 어느 일이나 修省하지 아니함이 없고 어느 때에나 恐懼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자기몸에는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心術의 隱微한 사이에 쌓여 있는 흠과 병통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하며 宮禁內에서는 비록 家法이 본래 있겠지만 戚屬과 幽陰한 類들이 올려 받들고 찾아 뵈고 안개처럼 모여드는 따위의 일은 막아 버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며 諫言을 잘 받아들이는 미덕을 가지지만 때로 사사로운 뜻으로 굳게 거부하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요, 善을 즐김에는 비록 色을 좋아 하듯하는 성의는 가지지만 혹 虛로써 억지로 구하는데까지 이르는 일이 있으면 마땅히 살펴야 한다.⁷⁹⁾

벼슬과 賞은 함부로 하여 功이 없는 자는 요행으로 얻고 功이 있는 자는 불평으로 離散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지은 죄를 용서하여 벌을 면제하는 것은 악한 자로 하여금 죄를 면하고 선한 자로 하여금 해를 입게 하여서는 안된다. 절의를 숭상하고 염치를 장려함으로써 名敎의 방위를 튼튼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며 儉約을 숭상하고 사치를 금하여 公私의 재력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가히 태만히 할 수 없다. 祖宗이 이룩한 옛 현장이 오래되면 弊가 생기는 것이니 조금 變通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그 良法과 아름다운 뜻까지 모두 뜯어 고치면 반드시 큰 환란이 이를 것이요 조정의 고관들 가운데 「正」을 질시하고 異를 꺼리는 틈을 타서 일을 일으키는 자들은 미리 鎮靜시켜야 하는 것이나 그러나 혹 스스로 현명하고 착한 이의 類와 짝하기를 싫어하고 혼자 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 서로 배격하게 되면 반드시 도리어 傷處를 입게 된다.⁸⁰⁾

78) 故臣愚以爲君之於天猶子之親心有怒於子子之恐懼修省不問非怒 事事盡誠而致孝則親悅於誠孝而所怒之事並與之渾化無痕矣

79) 推事親之心以盡事天之道無事而不修省無時而不恐懼聖躬雖未有過失而心術隱微之間 疵病山積不可以不淨盡宮禁雖本有家法而戚屬幽陰之類納諷霧集不可以不 過防聽諫雖如轉圜之美有時乎以私而牢拒在所賞改樂善雖如好色之誠 或至於以虛而強求在所當審

80) 爵賞母濫使無功者幸得而有功者解體赦宥母數使爲 惡者獲免而爲善者受害尙節義厲

오로지 守舊循常하는 신하에게만 依賴하면 至治를 떨쳐 일으키는 데는 방해되고 新進의 일 좋아하는 사람만 신임하면 禍亂의 단서를 挑發하게 된다.

京外の胥吏 奴僕들은 貢納品을 이리 같이 뜯어먹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府庫를 도적질하여 비게 하고 鎭浦의 장수들은 범처럼 군졸을 삼키고 오히려 차지 못하여 그 독이 이웃 마을에까지 두루 미치어 貫荒이 극심하나 구제의 대책이 없고 변방에 도적이 일어날 것 같으나 군주는 천명을 깊이 알고 안으로 身心에 반성하여 敬으로 일관해서 중단이 없고 밖으로 정치를 닦아 배품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여 거짓 꾸밈이 없도록 하고 天人의 사이에 자처하는 바를 앞에 말한대로 극진히 하면 비록 홍수와 가뭄의 재앙과 譴警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恐懼修省의 힘을 베풀어 하늘이 주시는 仁愛의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말한 열여섯 가지의 일이 점차 해소되고 고쳐져서 治平에 이를 수 있다⁸¹⁾고 하며 「書傳」 太甲下의 伊尹의 말 “皇天은 따로 친함이 있지 않고 오직 잘 공경하는 자를 친하며 백성은 항상 변함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진 덕을 가진자를 생각하며 귀신은 항상 변함없이 歆饗하는 이 아니라 오직 정성스런 祭享만 받는다”⁸²⁾는 것과 「詩」 周頌我將篇의 “天威를 두려워하여 언제나 하늘의 뜻만 보전하라”⁸³⁾를 인용하여 이條目的 끝을 맺는다.

퇴계선생은 이상의 여섯 조목의 진술이 실은 彝教에 참가되 性과 道에 근본하고 성현에 근거하되 중용과 대학에 바탕하고 史傳에 상고하

廉恥以壯名教之防衛者不可疎崇儉約禁奢侈以裕公私之財力者不可緩祖宗之成憲舊章積久而生弊者 雖不可不稍變通然或并與其良法美意而 一切切更之必致大患縉紳之嫉正忌異何變而生事者固不可不預鎮靜然或自乖於賢儔善類而互相排擊之必見反傷

81) 惟殿下深知天所以仁愛己者若是其非從然也 內以自反於身心者一於敬而無作輟外以修行於政治者一於誠而無假飾所處於天人之際者無所不用其極如前所云云則雖有水旱之災譴警之至 猶可施恐懼修省之力而承天與仁愛之心如臣所論十六事者亦將以消除更化以臻於治平矣

82) 書曰皇天無親克敬惟親民罔常懷于有仁鬼神無常于克誠

83) 詩曰畏天之威于時保之惟聖明之留意焉幸甚

되 時事에 證驗하였다⁸⁴⁾고 한 바와 같이 列聖列賢을 祖述하고 詩·書·易·禮 그리고 大學章句와 中庸章句 및 이 二書의 或問 論語, 漢書, 史記, 魏志 등 史傳 그리고 기타 몇몇 典籍에서 인용하면서 日用彝敎에서 精義入神의 웅대한 규모와 자상한 陳言은 聖學 정치사상의 典範을 구성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은 “그러하오니 전하께서는 卑近하다하여 죽히 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迂闊하다하여 할 필요가 없다 말고 반드시 먼저 처음 二條를 근본으로 삼고 더욱 聖學의 工夫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⁸⁵⁾고 한다. 그리고 공부방법에 대해서 “너무 속히 효과를 거두고자 하지 말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도 마시고 그 극치를 다하여 과연 여기에 얻은 바 있으시면 나머지 다른 일들도 날을 따라 일을 따라 더욱 밝아지고 더욱 충실하게 되어 理와 義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줌이 참으로 맛있는 고기가 입을 즐겁게 하듯이 될것”⁸⁶⁾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누구라도 堯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吾人の性情은 참으로 堯舜이 될 수 있는 것이니 卑近하고 淺小한 것을 떠나지 않아도 실은 높고 깊은 그리고 원대하고 무궁한 것이 거기에 있는 것”⁸⁷⁾이며 “옛사람의 이른바 연원을 더듬어서 治首를 밝혀내고 本末을 관통하여 대중을 세운다는 것이 본래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다”⁸⁸⁾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公卿大夫들이 모두 이 설을 通習하고 이 道에 종사⁸⁹⁾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도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학 정치사상의 典範을 구성하는 戊辰六條疏는 물론 나이 어린 宣祖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宣祖를 위한 것

84) 右六條所陳皆非有驚天動地震輝人耳目之說然而實謹於 彝敎而本於性道宗於聖賢而質於庸學稽之史傳而驗之時事以爲言(戊辰六條疏)

85) 惟殿下勿以爲卑近而不足爲勿以爲迂闊而不必爲必先以首二條爲本而尤勤勵不息於聖學之功

86) 母欲速母自書以極其至於此而果有所得則其他事固亦隨日隨事而益明實理義之悅心真是如芻豢

87) 吾人之性情眞可爲堯舜不離乎卑近淺小而實有高深遠大而無窮者存彥

88) 古人所謂深淵源而出治道貫本末而立大中者初不外此

89) 今茲公卿大夫皆誦習此說而從事此道者也

이면서 大小臣僚와 당대의 학자 그리고 후세의 학자와 백성을 위한 곧 옛을 이어서 앞을 여는 陳述이라고 할 것이다.

2. 「進聖學十圖筭」의 정치사상

① 「聖學十圖」를 올린 이유와 十圖의 構成

성학십도는 퇴계선생이 68세때(1568) 17세의 어린 나이로 그 전년(1567)에 明宗이 昇遐하자 곧 즉위한 宣祖에게 올린 그림과 글이다.

명종과 같이 선조는 퇴계의 학문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여 벼슬을 除授하였다. 그러나 퇴계는 번번히 力辭하여 上京하지 아니하였다.

年譜에 의하면 선조 2년 5월에 證政府右贊成을 바꾸어 判中樞府事に 임명하였는데 力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7월 入都하고 다음 달인 8월에는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經筵春秋館, 成均惟事に 임명되고 「무진육조소」를 올렸다. 그리고 불편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여러번 경연에 나아가 강의하였다.

민본정치에 입각한 愛君憂國의 충정으로 12월에 「성학십도」를 筭子와 함께 올렸다. 이 상소를 하면서 퇴계는 “내가 나라에 보답함은 이 그림에 그칠 뿐이다”(李滉進筭 上聖學十圖…爲此圖以進一吾之報國止此圖而已, 「宣祖實錄」元年(戊辰) 12월朔)라고 하였다⁹⁰⁾는 것이다.

앞에서 「戊辰六條疏」를 고찰하였거니와 그 제3조에서 “敦聖學以立治本”을 陳言하였는 바 이 제3조에서 聖學 곧 帝王學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帝王學은 그 心法의 요점이 大舜의 禹에게 명한 말에 연원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인심을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하니 惟精惟一하여야 允執厥中하리라 하였다. 대저 천하로써 서로 전할 때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 부탁하는 말이 정치에 있어서 더 급할 것이 없거늘 舜이 禹에게 정중히 타이르는 것이 이와 같은 말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어찌 학문하여 덕을 이루

90) 琴章泰 “「聖學十圖」, 註釋과 조선후기퇴계학의 전개”, 「퇴계학보」, 제48집, p.6 퇴계학연구원

는 것으로써 정치의 大本을 삼을 것이 아니겠는가(豈不以學問成德爲治之大本也) 精一中은 학문하는 큰 법이니 大法으로써 大本을 세우면 천하의 정치는 다 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옛 성인의 말씀이 이러하니 성학이 至治의 근본(聖學爲至治之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퇴계가 「성학십도」를 올린 것은 군주로 하여금 學問成德·心之德으로써 정치의 大本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성학십도」를 작성하여 올린 이유를 “進聖學十圖”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河圖 洛書가 나오고 因해서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천하에 나타났으나 道는 넓고 넓으니 어디로부터 착수하고 古訓은 천만가지이니 어디에서부터 따라 들어갈 것인가. 성학은 큰 단서가 있고 心法은 지극한 요령이 있다는 것이다. 後賢들이 부득이 그것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 사람에게 入道의 門과 積德의 터전을 보여준다. 하물며 임금의 一心은 만가지 기틀이 연유하는 바이요, 백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요, 못 욕심이 互攻하고 못 사특함이 번갈아 들어오는 곳이니 한번 怠忽함이 있고 방종이 계속되면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⁹¹⁾

옛 聖帝 明王들은 이것을 근심하여 항상 조심하여 공경하고 삼가하며 小心畏愼하기를 날마다 하여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여 師傳의 官을 세우고 諫諍의 職을 베풀어 앞에는 疑, 뒤에는 丞을, 左에는 輔, 右에는 弼이 있으며 수레를 탈때는 族賁의 規가 있고 朝會를 받을 때는 官師의 법이 있고 책상에 기대고 있을 때는 訓誦의 諫이 있고 居寢에는 近侍의 箴言이 있으며 일에 임하였을 때는 瞽御의 인도와 宴居에는 王師의 誦이 있고 소반과 식기, 책상, 지팡이, 도검, 창문에 이르기까지 무릇 눈이 가는 곳과 몸이 처하는 곳에는 어디나 銘이 있고 경계함이 있어 그

91) 然而道之浩浩何處下手古訓千萬何所從人聖學有大端心法之有至要揭之以爲圖指之以爲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斯亦後賢之所不得已而作也而況人注 一心萬幾所由百責所萃衆欲互攻群邪迭鑽一有怠忽而放縱繼續之則如山之崩如海之蕩誰得而禦之(進聖學十圖箭 并圖)

마음을 유지하고 몸을 防範하는 것이 이토록 지극하여 덕이 날로 새로
와지고 業이 날로 넓어져 조그마한 허물도 없고 도리어 크고 높은 명성
이 남았다.⁹²⁾

후세의 군주가 천명을 받고 天位에 올랐으면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
고 지극히 큼에도 自治하는 도구는 하나도 이와 같이 엄한 것이 없어
그 王公들과 億兆백성들이 받드는 자리에서 편안히 스스로 성인인체 하
여 스스로 放恣하니 마침내 懷亂殄滅에 이르게 되는 것이 조금도 괴이
할 것이 없다.⁹³⁾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남의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인도하여 道에 마
땅하게 하려는 자는 그 마음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張九齡이 金鑑錄
을 내놓은 것이나, 宋璟이 無遊圖를 드린 것이나, 李德裕가 丹宸六箴을
드린 것이나, 眞德秀가 飭風七月圖를 올린 것과 같은 것이 모두 愛君憂
國하는 간절한 衷情과 陳善納諫하는 지극한 성의 때문이니 인군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敬服치 않을 수 있으랴.⁹⁴⁾

그래서 성학을 勸導하고 宸德을 輔養하여 堯舜의 이상에 이르기를
기함은 비록 사양하려 하여도 할 수 없다는 것⁹⁵⁾이다.

오직 옛 賢人과 君子들이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
고 圖說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道에 들어가는 문과 積德의 기초를 가르
친 것이 세상에 전하여 일월과 같이 밝아 있어 이에 감히 이것으로써
좌우에 올려 나누어 옛 제왕들의 工誦器銘의 遺意에 대신하고자 하니

92) 古之聖帝明王有憂於此是以兢兢業業小心畏慎日復一日猶以爲未也立師傅之官列諫諍
之聯前有疑後有丞左有轉右有弼在與有旅賁之規位宁有官師之典倚几一有訓誥之諫
居寢有警御之箴臨事有警史之導宴居有工師之誦以至盤盂几杖刀劍戶牖凡目之所
寓身之所處無不有銘有戒其所以維持此心防範此身者若是其至矣故德日新而業日廣
無纖過而鴻號矣

93) 後世人主受天命而履天位其責任之至重至大爲如何而所以自治之具一無如此之嚴也
則其小憫然自聖傲然自肆於王公之上億兆之載終歸於壤亂於殄滅亦何足怪哉

94) 若張九齡之進金鑑宋璟之陳無逸圖李德裕之獻丹宸六箴眞德秀之飭風七月圖之類其
愛君憂國拳拳之深衷陳善納諫懇懇之至意人君可不深念而敬服也哉

95) 勸道聖學輔養宸德以期致於堯舜之隆雖欲辭之以不敢何可得也

이것은 혹 기왕의 것을 借重하여 장래에 유익하게 되리라 생각되는 것⁹⁶⁾이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進聖學十圖筭”에서 찾아 본 “성학십도”를 올린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帝王學 곧 성학의 大綱 그리고 驗系化라고 할 것이다.

賢人 君子나 성학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과 도설을 지어서 入道의 문과 積德의 기초를 가르친 것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일곱 가지를 가렸는데 그 가운데 “第六心統性情圖”는 情復心作의 上圖에 중·하도는 퇴계선생이 스스로 만들어 붙였고 그 나머지 셋은 선현들의 설을 참고하여 그림을 자작하였으나 창작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그림마다 밑에 퇴계선생의 설명이 붙어 있다. 합하여 성학십도가 되는 것이다.

② 「진성학십도차」의 思想

“道는 형상이 없고 天은 말이 없다. 河洛圖書가 나옴으로부터 성인이 그것에 기인하여 卦爻를 지으니 도가 비로소 천하에 나타났다”(道無形象 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고 하여 유학 곧 성학의 기본은 河圖 洛書에 있고 이에 인하여 卦爻를 지으니 도가 비로소 천하에 나타났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河洛圖書의 기본사상은 태극음양론이며 卦爻에 의하여 우주 대자연의 존재와 인간존재가 밝혀진다. 천지의 대법은 生이며 天地人 三才사상과 天地人 합일사상 그리고 인본주의와 민본주의 정치사상이 도출된다.

퇴계는 성학십도에 “뜻이 미진한 바가 있어” 筭字에서 陳言한다고 하고 있다. 十圖와 그 圖說에서 다하지 못한말을 여기서 보충하고 있지만 성학십도를 통해서 행하여야 할 학문의 태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것을 陳言하고 있다.

96) 惟有昔之賢人君子明聖學而得心法有說以示人入道之門積德之基者見行於世 昭如日星茲敢乞以是進陳於左右以代古昔帝王工誦器銘之遺意庶幾借重於既往而有益於將來

곧 맹자가 말하기를 마음(心)의 맡은 직분은 생각하는 것(思)이다. 생각하면 얻고 생각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⁹⁷⁾고 하고 箕子가 武王을 爲하여 洪範을 말할 때에도 또 “思는 睿요 睿하면 作聖한다”⁹⁸⁾고 하였으니, 대저 마음은 方寸에 갖추어 있으면서 至虛至靈한 것이며 그 理는 圖書에 나타나 있으면서 至顯至實한 것이다. 至虛至靈한 心으로써 至顯至實한 理를 구하면 마땅히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니, 생각(思)하여 얻고 睿하여 作聖하는 것이 반드시 徵驗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심)의 虛靈도 만약 主宰함이 없으면 일을 앞에 당하여도 생각하지 못하고 理의 顯實도 照管함이 없으면 눈으로 항상 接하고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하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至虛至實한 마음으로써 至顯至實한 理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자의 “배우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하다”는 말은 인용하여 여기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익히어 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⁹⁹⁾고 하였다.

聖門의 學은 마음에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생각하여 그 微에 통하여야 하고 그 일을 익히지 아니하면 위태하여 불안하므로 반드시 배워서 그 實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思와 學이 서로 밝히고 서로 유익하다고 한다.

위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먼저 立志하여 “舜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함이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奮然히 學과 思의 工夫에 힘쓰라고 한다. 그런데 持敬하는 것은 또 思와 學을 兼하고 動과 靜을 貫하고 內와 外를 합하고 顯과 微를 一로하는 方道라고 한다.

97) 「孟子」, 告子章句上, 鈞是章에 나온다.

98) 「書傳」註에 睿는 通乎微也라 하고 聖者無不通也라 하고 있다.

99) 夫心具於方寸而至虛至靈理著於圖書而至實以之虛之靈之心求至顯至實之理宜無有不得者則思而得之睿而作聖豈不足以有徵於今日乎然而心之虛靈若無以主宰則事當前而不思理之顯實若無以照管則日常接而不見此又因圖致思之不可忽焉者然也抑又聞之孔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學也者習其事真踐履之謂也.

그리고 持敬하는 方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齊莊靜一 속에 두고 이 理致를 學問思辨하는 사이에 窮究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戒懼하기를 더욱 嚴하게 하고 더욱 공경스럽게하여 隱微하고 幽獨한 곳에서 성찰함은 더욱 정밀하게 하여야 한다. 한 그림을 두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림에 專一하여 다른 그림이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같이 하고 한 일에 쫓아 익히면 당연히 그일에 전일하여 다른 일이 있는 줄… 모르는 것처럼 하여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하고, 매일 계속하여 或은 夜氣가 청명한 때에 繡繹玩味해보고 혹은 日用酬酌의 지음에 體驗하고 복돋우면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되고 矛盾되는 일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매우 辛苦스럽고 快活하지 못한 苦痛을 면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옛 사람들이 이른 바 “將大進之幾”이니 또한 좋은 消息의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스로 沮喪하지 말고 더욱 마땅히 자신을 가지고 힘써서 참된 공부를 오래 쌓으면 자연히 마음과 이치가 서로 용납하여 融會貫通하게 된다. 그래서 꺾과 일이 서로 익숙하여져서 차츰 모든 것이 順坦하고 편하게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각각 그 하나를 전공하였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가 하나로 화합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실로 맹자가 논한 바 “造詣를 깊게하여 自得하는(深造自得)”¹⁰⁰⁾경지이며 살아서는 그만 둘 수 없는 徵驗이다. 또 이것에 따라서 부지런히 힘써 내 재주를 다 하면 顔子の 仁을 어기지 않는 마음(顔子之心不違仁)¹⁰¹⁾과 나를 위하는 사업이 모두 그 속에 있게 될 것이며 會子の 一貫된 忠怒와 傳道の 責任(會子之忠怒一貫而傳道之責)이 그 몸에 있게 된다. 日用 속에서 敬畏를 떠나지 않으면 中和位育¹⁰²⁾의 功을 이룰 수 있고 德行이 彝倫에 벗어나지 않으면 천인합일의 妙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비록 그림과 說明은 겨우 열 幅紙上에 적어 놓은 것에 不過하고, 생각하고 익히는 공부는 다만 平日 燕處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만 道를 깨달아 성인되는 要領과 근본을 바로잡아

100) 「孟子」離婁章句下

101) 「論語」雍也第六

102) 「中庸」의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

정치를 경륜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 있다고 하여 持敬의 방법을 상세히 또 깊게 그리고 丁寧하고 인간은 누구나 함이 있으면 舜이 될 수 있는 존재이다. 致中和면 天地位焉하며 만물이 育焉할 수 있으며 德行이 彝倫에 벗어나지 않으면 천인합일의 妙를 얻을 수 있으며 이 「聖學十圖」와 그 說明이 道를 깨달아 聖人되는 요령과 정치를 경륜하는 근원이 모두 여기 갖추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進聖學十圖筭」의 사상은 聖學政治思想의 大綱이며 樞要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聖學十圖」의 정치사상

① 第一太極圖

周濂溪의 太極圖 및 圖說과 주자의 해설 그리고 퇴계의 補說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도설은 저 유명한 無極而太極으로 始作한다. 그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¹⁰³⁾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고 動이 極하면 靜하니 靜하여 陰을 生한다. 靜이 極하면 다시 動한다. 한 번 動하고 한 번 靜함이 서로 그 뿌리가 되어 陰으로 갈리고 陽으로 갈리니 兩儀가 맞서게 된다. 陽이 변하고 陰이 합하며 水·火·木·金·土를 生하니 五氣가 순차로 퍼지어 四時가 돌아가게 된다. 五行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요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오행의 생이 각각 그性を 하나씩 가지니 無極의 眞과 二五(陰陽五行)의 精이 玆로 玆로 응결된다. 乾道는 男이 되고 坤道는 女가 되어 二氣가 서로 感하여 萬物을 化생한다. 만물이 生하고 生하여 변화는 다함이 없다. 오직 사람이 그 秀함을 얻어 가장 靈하다. 形이 이미 생기니 정신이 知를 발하고 五性 곧 仁禮義智信이 感하여 움직이니 선과 악이 갈리면서 만사가 생겨난다. 성인은 이 선악이 갈리지면서 만사가 생겨나는 인간사회의 현상에 있어서 사물처리의 基準을 中正仁義로써 定하고(李相殷註:성인의 도는 仁義·中正일 따름이다) 靜을 주로 하여 (李相殷註:無欲함으로 靜하다)

103) 李相殷, “聖學十圖解釋” 『退溪學報』 第2輯 및 「고전국역총서국역퇴계집」參照.

人極을 세운다.

그러므로 聖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퇴계는 이 太極圖와 圖說이 周濂溪가 만들었다는 것, 平巖葉氏는 이 그림은 繫辭의 “易有太極是生兩儀生四象”의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인데 易은 卦爻로써 말하였고 이 그림은 造化로서 말하였다고 補說을 붙이고 있다. 이어서 주자는 “이것은 道理의 大頭腦處요 또 百世道術의 淵源이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책머리에 이 그림을 게재하는 것은 역시 近思錄에서 이 圖說을 첫머리에 실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한다.

주자와 함께 「近思錄」을 편찬한 呂東萊祖謙은 太極圖說을 책머리에 두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뒤에 나온 후진들에게 의리의 本源에 대하여 벼란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梗槩를 茫然히 모르고 있으면 어찌 그 닿는 곳이 있을 것인가. 책머리에 이를 序列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명의를 알고 鄉望하는 바가 있게 하고자 한 것 뿐이다(後出脫進於義理之本原雖未客驟語苟茫然不識其梗槩則亦何所底止列之篇端特使之知其名義有所鄉望而已……近思錄集解)

대개 성인을 배우는 자는 여기서부터 端을 찾아서 小學과 大學의 類에 힘쓰면 그 공을 거두는 날에 이르러 하나의 근원을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른바 “窮理盡性以至於命”¹⁰⁴⁾이 이것이며, 이른바 “神妙를 다 하고 造化를 알아서 덕의 盛者가 된다”(窮神知化德之盛者也)¹⁰⁵⁾고 덧붙이고 있다.

周濂溪의 이 太極圖說은 宇宙論인데 太極, 陰陽, 五行의 動靜과 變化로 인한 만물이 생성하는 천도에 관한 것이 있고, 인간이 나서부터 인간상호간이나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생기면서 오성의 감동으로 선악이 갈리고 만사가 생겨나서 吉凶禍福의 현상이 생김을 말하고 만사를 처리하는 기준으로서 “中正仁義靜立入極”의 人道에 관한 것이 있다. 요

104) 易, 說卦傳

105) 易, 繫辭下傳

컨데 우주관과 인간관이 太極陰陽論에서 導出된다.

「進聖學筭」의 冒頭의 “道無現象天無言語自河洛圖書之出聖人因作卦爻而道始見於天下矣”라고 한 바와 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완전하고도 전면적인 인식과 당위의 기본적인 과학과 철학의 大綱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與天地合其德하며 與日月合其明하며 與四時合其序하며 與鬼神合其吉凶 할 수 있는 人間完成, 修齊治平과 우주의 완성 또는 성취를 보장하는 과학과 철학의 통일이다.¹⁰⁶⁾

太極陰陽論 그리고 우주관과 인간관과 心法은 민본주의정치사상을 闡明하고 있는바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發展에 차원 높은 寄與를 할 것이다.¹⁰⁷⁾

② 第二西銘圖

퇴계선생의 설명에 西銘은 橫渠張子가 지은 것이며 처음은 訂頑이라고 불리었는데 程子가 고쳐서 西銘이라 하고 林隱程氏가 이 그림을 만들었다고 한다.¹⁰⁸⁾

乾을 아버지라 부르고 坤을 어머니라 부른다. 나 이 조그만한 몸이 混然히 그 가운데 처해 있도다. 그러므로 천지간에 차 있는 것은 나의 형체요 천지를 이끄는 것은 나의 본성이다. (天地之塞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

民은 나의 동포요 物은 나의 與族이다. 大君이라는 것은 나의 부모의 宗子요 그 大臣이라는 것은 그 宗子の 家相이다. 나이 많은 이를 높이

106) 琴鍾友, “새마을 정신과 민족정신의 구조적 재조명”, 『새마을 운동 학술논문집』 제12집 5권, 1987. 琴鍾友, “전환기에서 보는 유교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第7回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 會合同學術大會論文集』, 1987. 10, 韓國政治學會, 參照

107) 琴鍾友, “한국의 전통적 민주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第5回 合同學術大會論文集』, 1985, 한국정치학회.

108) 右銘橫渠張子所作初名訂頑程子改之爲西銘林隱程氏作此圖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第七卷, 進聖學十圖筭并圖, 第二西銘條 西銘譯文은 李相殷, “聖學十圖譯解”『退溪學報』第二輯 및 고전국역총서, 『국역퇴계집』 참조.

는 것은 그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所以요(尊高年所以長其長) 외롭고 약한 이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그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는 所以이다. 성인은 그 덕을 합한 사람이요 현인은 그 빼어난 사람이다.(聖其合德賢其秀也) 무릇 천하의 늙고 병들고 외로운 홀아비와 과부는 모두 내 형제중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고 호소할 데 없는 자이다.

하늘의 威嚴을 敬畏하여 이에 하늘이 人間을 내려 살펴보는 뜻을 보존하는 것은 자식의 공경이요(于時保之子之翼也)¹⁰⁹, 즐거워 근심하지 아니함은 효에 순수한 자이다(樂且不憂純乎孝子)¹¹⁰

천명을 어김을 惇德이라 하고 인을 害함을 賊이라 한다. 악을 더하는 자는 不才요 천성의 자연한 法則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를 닮은 자이다(濟惡者不才其踐形惟肖者也)

조화를 알면 그 일을 잘 이어 쫓고 神妙를 다하면 그 뜻을 잘 이어 받든다.(知化則善述其事窮神則善繼其志지) 屋漏에서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모를 辱되게 아니 함이요 存心養性함은 천을 섬김에 게을리 아니 함이다. 맛 좋은 술을 싫어함은 禹임금의 아버지 돌봄이요(惡旨崇伯子之顧養) 영재를 기르는 穎考叔이 그 類를 길이 이어가게 함이다.(育英才穎封人之錫類)

피로와도 공경을 게을리 아니하여 마침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 이는 舜임금의 효도의 공이요 도망갈 것이 없어 죽음도 피하지 않음은 申生의 공경이다.(無所逃而待烹申生其恭也)

부모가 온전하게 낳아주신 몸이니 자식은 마땅히 온전하게 가지고 돌아감은 曾參이며(體其受而歸全者參乎), 따름에 용감하여 명령에 순종함은 伯奇이다. (勇於從而順令者伯奇也)

부귀와 福澤은 장차 나의 생을 두터이 할 것이요 빈천과 憂戚은 너를 왕성시키니라(富貴福澤將厚吾之生也貧賤憂戚庸玉女于成也)

109) “于時保之”는 詩, 周頌, 清廟之什, 我將에 “我其夙畏天之威于時保之”라고 있다. 그리고 翼은 공경의 뜻이다.

110) 易繫辭上傳, 第四章에 “樂天知命故不憂”라 하였고, 左傳隱公元年傳에 “君子曰 穎考叔純孝也”라 하였다.

살아있는 동안 나는 순하게 섬기고 죽을 때는 나는 편안히 돌아가리라(存吾順事沒吾寧也)

퇴계가 인용한 宋儒의 西銘解說에 따르면 주자가 말하기를 西銘은 程子が 理一分殊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乾으로써 父를 삼고 坤으로써 母를 삼는 것은 生을 가지는 種類로서 그렇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이 이른바 “理一”이다. 그러나 人과 物의 생이 血脈을 가지는 族屬들은 각각 그 어버이를 어버이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는 것이니 그 分이 어찌 다르지 않겠는가. 一統이면서 萬殊이니 비록 천하를 일가로 하고 중국을 일인으로 하여도 겸애의 弊에 흐르지 않는 것이요 萬殊이면서 一貫이니 비록 親疎가 情이 다르고 貴賤이 等級이 다르더라도 나만 위하는 私에 桎梏되지 않는다. 이것이 西銘의 大旨이다. 그 親親의 厚함을 미루어 大無我的 公으로써 事觀하는 誠에 인하여 事天하는 도를 밝힌 것을 보면 어디를 가나 “分”에서 서서 “理一”을 미루는 것이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段은 바둑盤 같고 後一段은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하였다.

龜山楊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理가 하나이면서 分이 다르다. 그 理一임을 알기 때문에 仁이 되는 것이요 그 分殊임을 알기 때문에 義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맹자가 親親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 다음 物을 사랑한다고 한 것과 같다. 그 分이 같지 아니하므로 그 베푸는 바가 差等이 없을 수 없다고 하였다.

雙峯饒氏는 말하기를 西銘의 前一節은 사람이 天地의 아들임을 밝혔고 後一節은 사람이 천지를 섬기기를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인용하고.¹¹¹⁾

성학은 仁을 구하는데 있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天地萬物과 더불어 一體가 됨이 진실로 이렇다 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여야 인을 하는 공부가 비로소 親切有味하여 莽蕩히 교섭

111) 雙峯饒氏曰西銘前一節明人爲天地之子後一節言人事天地當如子之事父母也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集」一), 卷之七, 西銘條

없이 될 근심이 없고 또 物을 자기로 인정하는 병통도 없이 마음의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程子は 이르기를 “西銘의 뜻은 극히 完備하니 이것은 인의 體이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다 채워 擴充한 때는 성인이 된다”고 퇴계선생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¹¹²⁾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주자는 말하기를 “西銘은 程子와 理一分殊를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乾으로써 父를 삼고 坤으로 母를 삼는 것은 生을 가지는 種類로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所謂 “理一”이다. 그러나 人·物의 生이 혈맥을 가지는 族屬들은 각각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고 그 자식을 자식으로 하는 것이니 그 分이 다르다. 곧 一統이면서 萬殊이니 兼愛의 弊에 흐르지 않고 爲我에 桎梏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것이 西銘의 大旨라고 하였다.¹¹³⁾

龜山楊氏는 말하기를 “西銘은 理가 하나이면서 分이 다르다. 그 理一임을 알기 때문에 仁이 되는 것이요 그 分殊임을 알기 때문에 義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雙峯饒氏씨는 말하기를 西銘은 사람이 천지의 아들이고 사람이 천지를 섬기기를 마땅히 부모 섬기듯이 해야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에 퇴계는 말하기를 성학은 仁은 구하는데 있다. 모름지기 이 뜻을 깊이 체득하여야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됨이 진실로 이렇다 함을 알수 있게된다. 그래야 仁을 하는 공부가 잘 되고 物을 자기로 인정하는 병통도 없이 덕이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여 仁의 실천은 우주 이치의 체득, 따라서 나와 천지만물이 일체라는 것을 자각하는데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第一太極圖와 이 第二圖는 성학의 가장 중

112) 蓋聖學在於求仁須深體此意方見得與天地萬物爲一體眞實如此處爲仁之功始親切有味免於莽蕩無交涉患又無認物爲己之病而心德全矣故程子曰西銘意極完備乃仁之體也又曰充得盡時聖人也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第七卷, 進聖學十圖筭并圖, 第二西銘條

113) 右小學古無圖臣謹依本書目錄爲此圖以對大學之圖又引朱子大學或問通論大小之說以見二者用功之梗槩蓋小學大學相待而成 所以一而二而一者也 故或問得以通論而於此兩圖可以兼收相備云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卷之七, 第三小學題辭條

요한 단서라고 할 것이다. 다른 모든 사물과 같이 인간은 각기 다르고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그 생성은 다 같이 우주의 생성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이니 인간존재의 평등성 내지 연대성과 개별성을 자각하여 인과 의가 당위가 된다.

③ 第三小學圖

퇴계선생은 말하기를 小學¹¹⁴⁾은 옛적에 그림이 없었는데 퇴계선생이 小學의 목록에 依據하여 小學圖를 만들었다. 이것으로써 大學圖에 對가 되게 하고 또 주자의 혹간에서 大學과 小學은 通論한 설을 인용하여 二者의 공부하는 대강 줄거리를 나타내었다.

소학과 대학은 서로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혹간에서 그것을 통하여 같이 논할 수 있었고 이 두 그림에서도 兼收하여 갖추어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자는 소학題辭에서 말하기를 元亨利貞은 천도의 常이며, 仁義禮智는 人性的의 綱이다. 이것들은 처음에 선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藹然한 四端이 感에 따라 나타나서 愛親敬兄忠君弟長하니 이를 秉彝(本性)이라 한다.

본성은 순함이 있되 強制함이 없다. 오직 성인은 性대로 하는 분이라 하늘과 같이 넓고 넓어 털끝만한 힘도 들이지 않아도 萬善이 갖추어진 다.

衆人은 미련하여 物欲이 가려 그 강을 무너뜨리고 자포자기한다. 성인은 이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建學立師하여 그 뿌리를 복돋우고 그 가지를 펴게 하였다.

소학의 방법이란 灑掃하고 應對하고 들어와서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하여 행동을 理法에 맞게 하는 것이다. 行有餘力이면 誦詩, 독서하고 詠歌, 舞蹈하여 생각이 분에 넘침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4) 小學은 주자가 先秦시대의 유교경전과 史書속에서 고대의 소학교육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말을 蒐集하여 편찬한 冊이다. 그 내용이 立教 明倫 敬身의 三大綱領으로 되어 있고 권두에 주자가지은 題解가 실려 있다.

窮理修身은 이 學問의 큰 것이다. 밝은 命이 환하여 안과 밖이 없으니 德崇業廣하여야 復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가 멀어지고 성인이 없어져서 經典이 쇠잔하고 가르침이 해이하니 어린이 가르침이 단정치 못하여 자라서 더욱 浮薄하여지니 마을에 좋은 풍속이 없어지고 세대마다 좋은 인재가 부족하여 利欲에서 싸움질을 하고 異端의 말로 시끄럽게 떠든다. 다행히 본성이 다 떨어지지 않는 아니 하였으니 이에 舊聞을 모아 뒤에 오는 세대를 깨우칠까 한다고 하고 있다.

요컨대 天道와 人道에 관한 주자철학이 반영되어 있으며 젊은이의 교육이 중차대한 과제이며 그 사상과 방법이 소학의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¹¹⁵⁾

퇴계선생은 “小學圖”를 그리고, 小學題辭를 붙이고 또 주자의 大學或問의 말을 부치고 있다.

주자는 말하기를 學의 大小는 물론 같지 아니하나 그 道됨은 한가지 일 따름이다 하고, 그러므로 어렸을 때 소학을 익히지 아니하면 그 放心을 거두고 그 덕성을 養하여 대학의 기본을 삼을 수 없고 자라나서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리를 살피서 사업에 實施하여 소학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幼學의 士로 하여금 반드시 먼저 스스로 灑掃應對進退의 間과 禮樂射御書數의 習에 다 익숙해지게 하고 그 자람을 기다려서

115) 소학은 內外篇 두 부분으로 편성되었다. 內篇은 立教第一, 明倫第二, 敬身第三, 稽古第四로 편술되어 있는데, 立教, 明倫, 敬身은 모두 虞, 夏商周時代의 성현의 말을 서술한 것으로 小學의 강령이 되는 것이요 稽古는 성현이 行을 採錄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實例를 보인 것이다. 外篇은 嘉言第五, 先行第六으로 編述되었는데 嘉言은 漢代以後의 현인의 말을 서술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내용을 더 넓힌 것이요, 善行은 漢代 이후의 현인의 行을 기록하여 立教, 明倫, 敬身의 사례를 더 보여준 것이다. 立教란 教法을 세운다는 뜻이니 教法을 세워 사람을 교화한다는 것이고, 明倫이란 人倫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고 敬身이란 스스로 그 몸을 조심한다는 뜻이니 大學에 이른바 「修身」, 中庸의 「誠身」이 모두 敬身に 해당된다.

明德新民에 나아가 至善에 그치도록 하는 것은 順序上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¹¹⁶⁾

어떤 사람이 또 “만약 그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서도 이에 미치지 못한 者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으니 朱子는 말하기를 세월이 이미 지나갔으면 물론 할 수 없지만 그 工夫의 順序와 條目이야 어찌 補充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들으니 「敬」字는 聖學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는 所以의 것이라고 한다. 小學¹¹⁷⁾을 하는 이로서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本源을 함양하여 灑掃應對進退의 節과 六藝의 가르침을 삼가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요 大學을 하는 이도 이에 말미암지 않고서는 聰明을 開發하여 德을 나아가게 하고 業을 닦아서 明德 新民의 功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不幸히 때를 놓친 뒤에 學問하는 사람은 진실로 能히 이에 힘써서 大에 나아가고 그 小를 兼補하면 그 나아가는 所以가 장차 根本이 없어서 自達하지 못하게 될 念慮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¹¹⁸⁾

④第四大學圖

퇴계선생은 말하기를 大學은 孔氏遺書인데 國初에 陽村 權近이 大學圖를 그렸다고 한다. 그리고 章下에 引用된 或問의 大學과 小學을 通論

116) 李相殷, 前揭譯解 參照.

或問子方將語人以大學之道而又欲其考乎小學之書何也 朱子曰學之大小固有不同有不同 然其爲道則一而已是以方其幼也不習之於小學 則無以收其放心養其德性而爲大學之基本及其長也不進之於大學則無以察夫義理措諸事業而收小學之成功 「退溪先生文集」目錄上卷之七小學題辭條

117) 今使儒學之士必先有以自盡乎灑掃應對進退之間禮樂射御書數之習俟其既長而後進乎明德新民以止於至善是乃次第之當然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小學題辭條

118) 又何爲不可哉曰若其年之既長而不及乎此者則如之何曰是其歲月之已逝固不可追其功夫之次第條目豈遂不可得而復補耶 吾聞敬之一字聖學之所以成始而成終者也 爲小學者不由乎此固無以涵養本源而謹夫灑掃應對進退之節 與夫六藝之教爲大學者不由乎此 亦無以開發聰明進德修業而致夫明德新民之功也 不幸過時而後學者 誠能用力於此 以進乎大而不害兼補乎其小則其所以進者將不患其無本而不能以自達矣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小學題辭條

한 뜻은 小學圖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大學과 小學 두 說만 通해 볼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의 여덟 그림도 모두 마땅히 이 두 그림과 通해서 보아야 한다.

대개 이 두 그림은 端을 求하여 擴充하고 天을 體하여 道를 다하는 極致의 것으로 小學과 大學의 標準과 本原이 되고 아래 여섯 그림은 明善, 崇德, 廣業을 힘쓰는 것으로서 小學과 大學의 田地와 事功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敬이라는 것은 또 形上과 形下를 通하는 것이니 著工하고 收効하는데 모두 마땅히 從事하며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朱子와 같이 이 十圖를 모두 敬으로써 主를 삼았다고 한다.¹¹⁹⁾

「大學」은 首章이 經文이고 9章의 글은 이 經文을 풀이한 傳文이다. 經文을 우리말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¹²⁰⁾

大學의 道는 明德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至善에 그치는데 있다. 그칠 데를 안 다음에야 定함이 있고, 定한 다음에야 靜할 수 있고, 靜한 다음에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다음에야 생각(慮)할 수 있으며 생각한 다음에야 얻(得)을 수 있다. 物은 本末이 있고 일은 終始가 있다. 먼저 하고 뒤에 할 바를 알면 道에 가까우니라. 옛적에 明德을 天下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는 者는 먼저 그 앎(知)을 다(致)할 것이니 致知는 格物에 있다.

物이 格한 다음에 앎(知)이 이르고(至), 知가 이른 다음에 뜻이 성실

119) 右孔氏遺書之首章國初臣權近作此圖章下所引或問通論大小學之義說見小學圖下然非但二說當通看并與上下八圖皆當通此二圖而看 蓋上二圖是求端擴充 體天盡道極致之處, 爲小學大學之標準本原下六圖是明善誠身崇德廣業用力之處 爲小學大學之田地事功 而敬者又徹上徹下著工收効皆當從事而勿失者也故朱子之說如彼而今茲十圖皆以敬爲主焉太極圖說言靜不言敬朱子註中言敬以補之「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大學經條

120) 李相股, 前揭譯文 및 「국역퇴계집」참조

하게 되고 뜻이 성실하게 된 다음에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다음에 修身이 되고 修身이 된 다음에 家齊하고 집이 가지런한 다음에 國治하고 나라가 다스려진 다음에 天下가 平하여진다. 天子로부터 庶人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修身으로써 根本을 삼는다. 根本이 어지러워지고 끝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 그 厚할 데에 薄하고 그 薄할 데에 厚할 者도 있을 수 없다.

大學은 三綱領과 八條目으로 構成되었으며 三綱領은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이고, 八條目은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이다.

八條目은 三綱領을 實現하는 方法 및 節次이다. 大學은 儒學의 目標와 그 目標의 實現方法을 차례로 말한 것이다. 이처럼 目標와 方法을 條理있게 敘述한 것은 儒學經典에 있어서 「大學」이 처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儒學體系를 易簡히 알려면 「大學」을 읽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修齊治平의 根本도 마음에 있다는 것¹²¹⁾을 闡明하고 있다.

大學圖의 大學經文에 퇴계가 朱子의 大學或問의 다음과 같은 말을 붙이고 있다.

或者가 말하되 그대는 敬을 어떻게 工夫하는가, 朱子가 말하되 程子는 일찍 “主一無適”으로써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써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는 이른바 “常惺惺法”이라는 것을 말한 일이 있고, 尹氏는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다. 敬이란 一心의 主宰요 萬事의 根本이다. 그 힘쓰는 方法을 알면 小學을 여기서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알 수 있으며 小學을 여기에서부터 始作해야 할 것을 알면 大學을 이것으로써 끝마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一貫해서 疑心없이 될 것이다.

대개 이 마음이 이미 서 있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格物致知하여 事物의 理致를 다한다면 그것이 이른바 尊德性而道問學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誠意正心하여 修身하면 이것이 이른바 먼저 그 大者를 세우면

121) 上同

小者가 빼앗지 못한다(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집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天下에까지 미치면 이것이 이른바 “자기 몸을 닦아 百姓을 편안하게 하는 것”(修己以安百姓)이며, “業을 두텁게하여 天下가 평하여진다”(篤恭而天下平)는 것이다. 이것이 모두 하루도 敬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 敬字한 字가 어찌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 아니겠는가 하고 있다.¹²²⁾

⑤第五白鹿洞規圖

퇴계는 朱子の 白鹿洞規를 바탕으로 白鹿洞規圖를 그리고 朱子の 白鹿洞規後叙를 부치고 自說을 덧붙였다. 自說에서 白鹿洞規는 朱子가 지어서 白鹿洞書院學者들에게 揭示한 것이라고 한다. 白鹿洞은 南康軍 北匡廬山南쪽에 있는데 唐나라 때 李渤이 여기에 隱居하여 白鹿을 기르면서 自適하였으므로 그 洞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南唐때에 書院을 세우고 國庠이라고 불렀는데 學徒가 항상 數百人에 달하였다. 宋太宗이 書籍을 내려주고 洞主에게 官職을 授與하여 寵勸하였다는 것이다.

中間에 荒廢하게 되어 朱子가 南康軍에 知事로 있을 때 朝廷에 請하여 이를 重建하고 學徒를 모아 規約을 베풀어 道學을 倡明하니 書院의 敎가 드디어 天下에 盛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唐虞의 敎는 五品¹²³⁾에 있고 三代之 學은 모두 人倫을 밝히는 것이므로 規約의 窮理와 力行도 모두 五倫에 根本하였으며 帝王學은 그 規矩와 禁防의 그릇이 비록 일반 學者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122) 或曰敬若何以用力耶朱子曰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嘗以整齊嚴肅言之門人謝氏之說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尹氏之說則有其心收斂不容一物者焉云云敬者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知其所以用力之方則知小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始知小學之賴此以始則夫大學之不能無賴於此以爲終者可以逸以貫之而無疑矣蓋此心既立由是格物致知以盡事物之理則所謂尊德性而道問學由是誠意正心以修其身則所謂先立其大者而小者不能奪由是齊家治國以及乎天下則所謂修己以安百姓篤恭而天下平是皆未始一日而離乎敬也然則敬之一字豈非聖學始終之要也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大學經條

123)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다섯가지의 名位와 等級을 가리키는 말.

彝倫에 根本하여 窮理 力行함으로써 心法의 절실하고 요긴한 데를 얻을려고 하는 것은 같다고 한다. 그리고 以上の 五圖는 天道에 根本하여 人倫을 밝히고 德業에 힘쓰는데 功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같은 퇴계의 說明은 白鹿洞規圖를 보는 것으로 一日虞然하게 알 수 있다.

朱子の 白鹿洞規는 過去 우리나라 書院의 學規의 典型으로서 매우 重要視되어 왔다. 洞規後叙에서 朱子는 이르기를 내가 가만히 보는데 옛 聖賢이 사람을 가르쳐 學問을 하게 하는 뜻은 모두 義理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然後에 미루어 사람에게까지 미치려하는 것이고 한갓 그것을 기억하고 두루 살피는데 힘써 詞章으로 명성을 내고 利祿이나 取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學問하는 사람은 이미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 그러나 聖賢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法은 經典에 갖추어 있다. 뜻있는 선비는 마땅히 熟讀하고 深思하여 묻고 분명해야 할 것이다. 진실로 理의 當然함을 알아서 그 몸으로 반드시 실행하기를 구하려 한다면 規矩禁防을 갖추는 것이야 어찌 남이 베풀어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하고 있다.

近世에도 學校에 規約이 있는데 그 學者를 待함이 이미 淺薄하고 그 法이 반드시 모두 옛 사람의 뜻이 아니므로 이제 이 學堂에는 그것을 實施하지 않고 특히 聖賢이 사람을 가르쳐 學問을 하게한 大端을 取하여 右와 같이 條目을 列舉하여 門위 懸板에 揭示한다. 諸君은 서로 더불어 講明하고 遵守하여 몸에 實踐하면 思慮와 言行에 있어서 戒謹恐懼 할 바가 반드시 저 규정보다 더 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或禁防의 범위를 벗어남이 있으면 저 이른바 規約이라는 것을 반드시 取해야 할 것이요 略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諸君은 잘 생각할지어다¹²⁴⁾

124) 熹竊觀古昔聖賢所以教人爲學之意莫非講明義理以修其身然後推以及人非徒欲其務記覽爲詞章以釣聲名取利祿而已今之爲學者既反是矣 然聖賢所以教人之法具存於經 有志之士固當熟讀深思而問辨之苟知理之當然而責其身以必然則夫規矩禁防之具 豈待他人設之而後有所持循哉近 世於學有規其待學者爲己淺矣而其爲法又未必古人之意也 故今不復施於此堂而特取凡聖賢所以教人爲學之大端條列

고 하고 있다.

⑥ 第六心統性情圖

퇴계선생은 心統性情의 세 그림의 上圖는 林隱程氏가 그리고 스스로 그 解說을 붙인것인데 그림이 穩當치 못한곳은 퇴계선생이 조금 고치고, 또 中圖, 下圖는 퇴계선생이 聖賢의 立言垂教한 뜻을 미루어 생각하여 그린 것이라고 한다.¹²⁵⁾

그리고 무릇 그 性情을 統會하는 것은 마음(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寂然不動하여 性이 되니 마음(心)의 體요, 感而遂通하여 情이 되니 마음(心)의 用이다.

張子は 이르기를 “마음은 性情을 거느린다(統)”는 말이 마땅하다. 마음(心)은 性을 거느림(統)으로 仁義禮智를 性이라 하고 또 仁義之心이라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며 마음(心)은 情을 거느림으로(統) 惻隱 羞辭, 辭讓, 是非를 情이라 하고 또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이니 하는 말도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음(心)이 性을 거느리지(統) 못하면 그 未發의 中을 이룰 수(致) 없어서 性이 천착되기 쉽고, 마음(心)이 情을 거느리지(統) 못하면 그 中節의 和를 이룰 수 없어서 情이 放蕩하기 쉽다.

學者는 이것을 알고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하여 그 性을 기르고(養) 그 情을 절제(約)하면 學問하는 길을 찾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다.¹²⁶⁾

如右而揭之楣間 諸君相與講明遵守而責之於身焉 則夫思慮云爲之際其所以戒謹恐懼者心有嚴於彼者矣其有不然而或出於禁防之外則彼所謂規者必將取之固不得而略也諸君其念之哉「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洞規後叙條

125) 右三圖上一圖林隱程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退溪先生文集」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情圖說條

126) 林隱程氏曰所謂心統性情者言人稟五行之秀以生於其秀而五性具焉於其動而七情出焉凡所以統會其性情者則心也故其心寂然不動爲性 心之體也感而遂通爲情心之用也 張子曰心統性情斯言當矣心統性故仁義禮智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心統情故 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而又有言惻隱之心羞惡辭讓是非之心者 心不統性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鑿 心不統情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學者知此

퇴계는 이 心統性情圖說에 이어 中圖下圖에 長文의 說明을 부쳤다. 그 中圖는 氣稟속에 있어서 本然의 性을 指出하여 氣稟을 섞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子思의 이른바 “하늘(天)이 命했다”는 性이나, 孟子의 이른바 “性善”이라고한 性이나, 程子의 이른바 “卽理性”이라는 性이나, 張子의 이른바 “天地의 性”이라고 하는 性이 모두 이것이라고 한다.

그 性을 말함이 이리함으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그 善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子思의 이른바 “中節의 性”이라든지 孟子의 이른바 “四端의 情”이라든지, 程子の 이른바 “어찌 不善한 情이라 할수 있는가”라고 한… 情이나, 朱子의 이른바 “性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본래 不善한 情이 없다”고 한 情이 이것이라고 한다.

그 下圖는 理와 氣의 습으로써 말한 것이니 孔子의 이른바 “性相近”이라 한 性, 程子の 이른바 “性卽氣, 氣卽性之性”이라 한 性, 張子의 이른바 “氣質之性”이라고 한 性, 朱子의 이른바 “비록 氣속에 있어서도 氣는 氣대로 性은 性대로 서로 섞이지 않는…”고 하는 性이 이것이다.

그 性을 말함이 이리하므로 그 發하여 情이 되는 것도 또한 理氣의 相須或은 相害하는 點으로써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四端의 情은 理가 發하고 氣가 따르니(理發而氣隨之)본래 純善하고 惡이 없지만 반드시 理가 發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氣가 가리워지면 흘러서 不善으로 되는 것이며 亡者의 情은 氣가 發하여 理가 되니(氣發而理乘之)역시 不善함이 없지만 氣가 發한 것이 中節하지 못하여 그 理를 滅하면 방탕하여 惡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하므로 程夫子의 말씀에 이르기를 “性을 論하면서 氣를 論하지 않으면 不備하고 氣를 論하면서 性을 論하지 않으면 不明하니 둘로 나누면 잘못이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孟子와 子思가 다만 理만 가리켜 말한 것은 不備한 것이 아니

必先正其心 以養其性而約其情則學之爲道得矣 臣謹按程子好學論約其情在正心 養性之前此反居後者此以心統性情言故也然究其理而言之當以程論爲順 「退溪先生文集」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情圖說條

라 氣를 아울러 말하면 性의 본래 善함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것을 不備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中圖의 뜻이라는 것이다.

要컨데 理氣를 兼하고 性과 情을 統攝하는 것은 마음(心)이요 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즈음(際)은 바로 一心의 機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善과 惡이 여기로부터 나누어진다.

學者는 진실로 能히 持敬에 專一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우기에 삼가해서 未發인 때 存養의 功이 깊고 已發인 때 省察의 翫이 익숙하여져서 참(眞)을 쌓고 오래힘써 마지 않으면 이른바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應用”의 心法이 모두 밖에서 求할 必要가 없이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한다.¹²⁷⁾

要는 心統性情圖와 圖說은 心과 性情의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것으로, 心統性情의 工夫를 위한 마음(心)과 性情 그리고 理와 氣의 體와 用 그리고 靜과 動, 理氣의 相須 혹은 相害를 按察하고 마음(心)이 理氣를 겸하고 性과 情을 統攝한다. 性이 發하여 情이 될 그 즈음은 一心의 幾微요 萬化의 樞要로서 善과 惡이 여기로부터 나누어지는 것이니 학자는

127) 右三圖上一圖林隱程氏作自有其說矣其中下二圖臣妄竊推原聖賢立言垂教之意而作其中者就氣稟中圖指出本然之性不雜乎氣稟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如子思所謂中節之情孟子所謂性善之性程子所爲即理之性張子所爲天地之性是也 其言性既如此故其發而爲情 亦皆指其善者而言如子思所爲中節之情孟子所謂四端之情程子所謂何得以不善名之之情朱子所謂從性中流出元無不善之情 是也其下圖者以理與氣合而言之孔子所謂相近之性程子所謂即氣氣即性之氣氣即性之性張子所謂氣質之性朱子所謂雖在氣中自氣性自性不 相夾雜之性是也其言性既如此故其發而爲情亦以理氣之相須或相害處言如四端之情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必理發未遂而揜於氣然後流爲不善七善七者之情氣發而理乘之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而滅其理則放而爲惡也 夫如是故程夫子之言曰論性不論氣不論氣不論性之明 二之則不是 然則孟子子思所以只指理言者非不備也以其并氣而言則無以見性之本善故爾 此中圖之意也要之兼理氣統性情也心 而性發爲情之際乃一心之幾微萬化之樞要善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尤致謹於此未發而存養之功深已發而省察之習熟眞積力久而不已焉 則所謂精一中之聖學 存體應用之心法皆可不待外求而得之於此矣 「退溪先生文集」 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卷之七, 心通性圖說條

진실로 능히 持敬에 전일하여 理와 欲에 어둡지 않고 더욱 이에 삼가하여 存養의 功과 省察의 翫이 익숙하여져서 참(眞)을 쌓고 오래 힘쓰면 精一執中의 聖學과 存體 應用의 心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⑦第七 仁說圖

仁說은 朱子가 저술하고 퇴계는 그림을 만든 것인데 仁道를 남김없이 발명하였다고 한다. 大學傳에 이르기를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치다”고 하였으니 옛 帝王들의 傳心體仁의 妙法을 구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뜻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¹²⁸⁾

朱子는 仁이란 천지가 物을 生하는 마음(心)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心)으로 심는 것이다. 發하기 전에는 四德이 갖추어 있지만 오직 仁만은 네 가지를 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혼연히 전부를 싸서 기루어 통섭한다. 이른바 生의 性이니, 愛의 理니 仁의 體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미 發했을때는 四端이 드러나지만 오직 惻隱만은 四端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루 흠어 관찰하여 통하지 않는곳이 없다.

이른바 性의 情이니 愛의 發이니 仁의 用이니 하는 것이 이것이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未發은 體요 已發은 用이다. 부분적으로 말하면 仁은 體요 惻隱은 用이다. 公이란 것은 仁을 體驗하는 所以이니 克己하여 復禮하면 仁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대개 公하면 仁하고 仁하면 愛한다. 孝悌는 그 用이 되고 怒는 그 施가 되고 知覺은 知의 일이다.

천지의 마음은 그 德이 넷이었으니 元亨利貞이라 한다. 그러나 그 운행에는 元이 통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것이 春夏秋冬의 차례로 되는데 여기서도 春生의 氣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도 그 德이 네가지 있으니 仁義禮智라 한다. 그러나 發用에는 仁이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發하여 愛恭宜別의 情이 되는데 여기서도 惻隱之心이 관통되지 않는 것이 없다. 대개 仁의 道됨은 천지의

128) 右仁說 朱子所述并自作圖發明仁道無復餘蘊大學傳曰爲人君止於仁 今欲求古昔帝王傳心體仁之妙益於此盡意焉(『退溪先生文集』 目錄上, (『增補退溪全書』一 仁說條)

물을 생하는 마음이 物에 나아가 있어서(卽物而在)情이 발하기 전에 이 體가 이미 갖추어 있고 情이 이미 발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보존하면 衆善의 源과 百行之本이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이 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학자로 하여금 仁을 구함에 급급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 말에 “克己復禮爲仁”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私欲을 克去하고 天理에 돌아가면 이 마음의 體가 거기에 있지 않음이 없고 이 마음의 用이 행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¹²⁹⁾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朱子は 仁이란 천지가 物을 생하는 마음이고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 것이라 한다. 朱子仁說에 있어서 仁은 體와 用으로 나누어지고 발하기 전에는 四德이 갖추어 있지만 오직 仁만은 네가지를 다 포함하고 이미 발했을 때는 四端이 드러나지만 오직 惻隱만은 四端을 관통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개 仁의 道됨이 천지의 物을 생하는 마음이 物에 나아가 있어서(卽物而在) 情이 발하기 전에 이 體가 이미 갖추어 있고 情이 이미 발하면 그 用이 다함이 없다. 진실로 이것을 체험하여 보존하면 衆善의 源과 百行之本이다. 여기에 있지 아니함이 없다고 하고 이것이 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학자로 하여금 仁을 구함에 급급하게 한 까닭이며 “克己復禮爲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私欲을 克去하고 天理에 돌아가면 이 마음의 體가 거기에 있고 그 마음의 用이 행하여 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이 朱子の 仁說에 대해서 퇴계는 大學傳에 “人君이 되어서는 仁에 그친다”고 한 바와 같이 옛 帝王의 傳心體仁의 妙理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그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⑧第八心學圖

퇴계는 心學圖는 林隱程氏가 성현의 心學을 논한 명언을 모아서 그림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¹³⁰⁾

129) 「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之七(「增補退溪全書」一) 仁說條

130) 右林隱程氏掇取聖賢論心學名言爲是圖(「退溪先生文集」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心學圖說條

林隱程氏復心은 이르기를 “赤子心”은 人欲이 어지럽히지 않은 양심이요 “人心”은 欲에 깨친 것이요(人心卽於欲者) “大人心”은 의리가 具足한 본심이요, 道心“은 의리에 깨친 것이다.(道心卽於義理者) 이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形氣에 生하면 人心이 없을 수 없고 性命에 근원하면 道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精一“과 ”擇善而固執“으로부터 이하는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工夫가 아닌 것이 없다.

“慎獨” 이하는 人欲을 막는 工夫이니 반드시 不動心에까지 이르러야 부귀가 어지럽히지 못하고 貧賤이 옮기지 못하고 威武가 굴복시키지 못하게 되어 그 道가 밝아지고 德이 확입됨을 알 수 있게 된다. “戒懼” 이하는 天理를 보존하는 工夫이니 반드시 “從心所欲不踰矩”에 이르기까지 이르러야 心이 곧 體요 欲이 곧 用이며 體가 곧 道요 用이 곧 義이며 소리(聲)가 律이 되고 몸(身)이 度가 되어 생각지 않고도 얻고 힘쓰지 아니하여도 들어맞게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다 하나의 “敬”을 떠나지 못한다. 대개 心이란 一身의 主宰요 敬은 또 一心의 主宰인 것이다. 학자는 “主一無適”의 說 “整齊嚴肅”의 說과 “其心收斂, 常惺惺”의 說에 대하여 익숙히 深究하면 그 工夫가 절로 다하여 성인의 경지에 들어감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¹³¹⁾

이에 퇴계선생은 설명을 보완한다. 퇴계는 心學圖에서 類를 나누어 상대시켜 놓기를 될수록 많이하여 聖學의 心法이 一端이 아님을 보여주어 모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위로부터 아래로 배열한 것은 다만 얕고(淺) 깊은(深) 것과 생소(生)하고 익숙(熟)한 것이 있었다는 것 뿐이요 그 工夫하는 과정과 절차가 致知, 誠意, 正心, 修身처럼 先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혹은 의심하기를 이미 大概로써 말한 것이라면 “求放心”은 用工初 시작의 일이니 “心在” 뒤에 놓일 것이 아니라고 하나 “求放心”은 알게 말함은 물론 제일 먼저 下手 著脚해야 할 것이지만 그 깊은 것에 就해야 極言하면 순식간의 一念의 小差도 역시 “放心”이 되는 것이니 顏子도 오히려

131) 「퇴계선생문집」 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心學圖說條

려 3개월 후에는 仁에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放心”에 관
 섭된 것이다. 다만 顏子만은 잠깐 어긋났다가도 곧 능히 이것을 알아차
 리고 알면 곧 다시는 싹트지 아니하니 역시 求放心의 類이다. 그러므로
 程氏의 그림이 이와 같다.

程氏의 字는 子見이요 新安사람인데 은거하여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行義가 매우 갖추어졌다. 늙도록 經書를 窮究하여 소득이 깊었고 四書
 章圖三券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元의 仁宗朝에 薦으로 불러 장차 등용
 하려고 하였으나 子見이 원하지 않으므로 鄉博士를 시켰더니 벼슬을 그
 만두고 향리로 돌아갔다. 그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어찌 소견없이 함부
 로 그림을 지었겠느냐고 한다.¹³²⁾

이상과 같이 마음들 바를 정하여 공부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人
 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고 道心을 가지는 工夫는 敬工夫에 있다. 마음
 (心)은 一身의 주재이고 敬은 一心의 주재이기 때문이다. 聖學을 배우
 는 자가 主一無適의 說과 整齊嚴肅의 說 및 其心收斂, 常惺惺의 說을
 익숙히 탐구하면 그 工夫가 절로 다하여 聖人の 경지에 들어감도 어렵
 지 않다는 心學圖說에 퇴계는 理學의 心法이 一端이 아니므로 모두 힘
 쓰지 않으면 안된다. (以見聖學心法亦非一端皆不可不用功工夫云爾)고
 덧붙이고 있다.

⑨ 第九 敬齊箴圖

퇴계가 이르기를 敬齊箴題下에 朱子 자신이 설명하기를 “張敬夫가 지
 은 主一箴을 읽고 그 남긴 뜻(遺意)를 주워 모아 敬齊箴을 지어 齊室壁
 에 써붙이고 자신을 경계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華人 王魯
 齊柏이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¹³³⁾

朱子の 敬齊箴에 이르기를 그 의관을 바르게하고 그 瞻視를 높이고
 (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하여 거처하면서 上帝를 대하듯이 하라(潛心

132) 「퇴계선생문집」 目錄上(「增補退溪全書」一)

133) 右箴題下 朱子自叙曰讀張敬夫主一箴掇其遺意作敬齊箴書齊室壁以自警云 …金華
 王魯齊柏排列地頭作此圖 「퇴계선생문집」 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敬齊箴條

以人居 對越上帝) 발은 반드시 무겁게 놀리고 손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여 땅을 가려 밟되 개미집도 피하여 돌아가라.(足容必重手容必恭擇地而蹈折族蟻卦)

門을 나가면 손님같이 하고 일을 받들면 제사를 드리듯하여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잠시도 安易하게 말라(出門如賓承事如祭戰戰兢兢罔敢或易). 입을 다물기를 병마개 막듯이하고 잡생각 막기를 성문 지키듯이 하여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잠시도 가벼이마라(守口如瓶防意如城洞洞屬屬敢或經)

西로 간다하고 東으로 가지말며 北으로 간다하고 南으로 가지말고(곧 主一無適을 뜻한다) 일을 당하면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데로 가지말라(不東以西不南以北當事而存蟻他其適).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일과 섞지 말라. 마음은 오직 專一하여야 萬가지 변화를 살릴 수 있다(弗貳以二事參以三惟心惟一萬變是監).

여기에 종사하면 이것이 敬을 지킴이니 動에나 靜에나 어김이 없고 밖이나 안이나 서로 바르게 하라(從事於斯是日持敬動靜弗違表裏交正).

잠시라도 틈이되면 萬가지 私欲이 일어나 불(火)없이 뜨거워지고 얼음없이 차지나니라. 毫釐라도 틀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三綱이 무너지고 九法(洪範九疇)이 또한 패해버릴 것이다. 아! 아이들아 생각하고 조심하라. 이제 먹을 갈아 글을 써서 경계를 삼아 감히 心靈에 告하노라(須兒有間私欲萬端不火而熟不永而寒毫釐有差天壤易處三綱既淪九法亦斃於乎小子念哉敬哉墨司戒敢告靈臺).¹³⁴⁾

위와 같은 朱子의 敬齊箴에 퇴계는 덧붙이기를 朱子가 敬齊箴은 “敬의 目說로서 여러 地頭로 말할수 있다”하였는데 “地頭”란 말이 實地工夫에 있어서 좋은 依據가 된다고 하였다고 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의 心目之間에 있어서 體玩하고 警省하여 얻는 것이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敬이 聖學의 始終이 된다는 말이 참말이 된다는 것이다.¹³⁵⁾ 위에서 본

134) 「퇴계선생문집」, 目錄上, 卷第七(「增補退溪全書」一) 敬齊箴條

바와 같이 이것은 敬工夫의 細目을 들고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敬工夫에 힘쓸 바를 상세히 말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⑩ 第十 夙興夜寐箴圖

夙興夜寐箴은 南塘陳茂卿 柏이 지어 스스로 경계한 것인데 敬齊箴圖를 참고로 하여 퇴계가 夙興夜寐箴圖를 그렸다고 한다.

夙興夜寐箴圖에 이르기를 닦아 울어 깨어나면 생각이 차츰 달리기 시작한다. 어찌 그 사이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지 아니하리오. 혹은 과거의 허물을 반성하고 혹은 새로 얻을 것을 생각해내어 차례와 條理를 瞭然하게 알아두어라(鷄鳴而寐思慮漸馳盍於其間澹以整之或省舊愆或細新得 次第條理瞭然默識).

근본이 있으면 이른 새벽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빗고 衣冠·차리고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어라. 이 마음을 거두어 잡으니 환하기가 해뜬 것 같다. 엄숙하고 整齊하고 虛明하고 靜一하다(本既立矣昧爽乃興盥櫛衣冠端座歛形提掇此心噉如出日嚴肅整齊虛明靜一).

이에 冊을 펴고 성현을 마주하면 夫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顏子·曾子 가 앞뒤로 서 있다. 聖師의 말씀한 것을 친절히 경청하고 弟子의 묻는 말을 한 번 반복하여 참고 해 바로 잡으라. 일이 이르러 응하면 행위에 정협하라. 하나님의 밝은 命이 환하게 항상 보이도다(乃啓方冊對越聖賢夫子在坐顏曾後先聖師所言親切敬聽弟子問辨反覆參訂事至斯應則驗子爲明命赫然常目在之).

사물응접이 끝나면 나는 예와 같아질 것이다. 마음속이 고요하니 정신을 모으고 생각을 쉬어라. 動과 靜은 돌고 돌아 마음만이 이를 살핀다. 고요할때는 보존하고 움직일때는 살펴서 정신을 둘로, 셋으로 오가지 말라. 글을 읽다가 여가를 틈타서 간간이 游泳을 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情性을 體養하여라(事應既已我則如方寸湛然凝神息慮動靜循環惟心是監靜存動察勿貳勿參讀書之餘間以游泳發舒情神體養情性).

135) 臣竊謂地頭之說於做工好有據依…而常宜體玩警省於日用之際心目之間而有得焉則敬爲聖學之始終豈不信哉 「퇴계선생문집」 目錄上 卷之七 敬齊箴條.

해가 저물고 사람이 권태로워지면 흐린 기분이 쉽게 타고 들어오니 장중하게 가다듬어 精明을 떨쳐라, 밤이 깊어 잠에들되 손을 마주 쥐고 발을 모으라.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心神을 잠으로 들어가게 하라. 夜氣로써 養하고 貞固하면 元에 돌아간다. 생각을 여기에 두고 終日乾乾 夕惕若하라(日暮人倦昏氣乘齋莊整齊振拔精明夜久斯寢齊手歛足不作思惟 心神歸宿養以夜氣貞則復元念茲在茲日夕乾乾¹³⁶).

퇴계는 위와같이 夙興夜寐箴에 덧붙여 說明하여 이르기를 金華王魯齊가 일찍 公州의 上蔡書院에서 敎育을 주관할 때 오로지 이 箴으로써 敎材삼아 學者로 하여금 각각 誦習 服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대개 敬齊箴은 여러 가지 工夫하는 地頭가 있으므로 그 地頭에 따라 排列하여 그림이 되었다. 대저 道가 日用사이에 流行함을 간데마다 있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理가 없는 곳이란 한군데도 없는 것이니 어느 곳인들 工夫를 그만 둘 수 있겠는가, 잠깐 사이에도 停止할수 없으므로 순식간도 理가 없을 때가 없으니 어느 때인들 工夫를 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러므로 子思子 가로되 “道라는 것은 잠시라도 사람에서 떠나지 못한다. 떠날 수 있으면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君子는 그 보지 못하는데서 삼가하고 듣지 못하는 데서 두려워하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숨긴다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적다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一動一靜 어느 것이나 곳에 따라 때에 따라 存養하고 省察하여 그 功夫를 힘쓰게 하는 法이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地頭에서나 毫釐의 差失도 없을 것이고 어느 時點에서나 순간의 中斷도 없을 것이다. 두 가지를 並進시키면 聖인이 되는 要領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의 五圖는 心性에 근원한 것이며 要는 日用에 힘쓰고 敬畏를 늘이고저 한 것이라고 덧붙인다.

136) 「퇴계선생문집」 목록 上卷之六(夙興夜寐箴條).

V. 결 론

위의 考察에서 퇴계선생의 學說은 政治의 治亂 兩面에 대한 詳細하고도 심원한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戊辰六條疏의 그 둘째 條目에 “讒訴와 이간질을 막아 兩宮을 親하게 할 것(杜讒間以親)”을 陳言하기를 孝와 慈의 道는 天性에서 나와서 衆善의 으뜸이 되며 그 은혜가 지극히 깊고 그 人倫이 지극히 무겁고 그 情이 가장 切實하다고 하고 지극히 깊은 은혜를 가지고 지극히 무거운 人倫에 따라 가장 切實한 情을 行하는 것이니 事理로 보아서는 마땅히 극진히 다하지 못할 일이 없어야 하지만 或孝道가 결함이 있고 또 慈愛하는 天性이 또한 없지는데 이르러 甚한 者는 至親이 사랑이 되어 돌보지 아니함이 있으니 帝王의 家庭에 있어서 이런 근심이 더욱 많다고 한다.

그 까닭은 대체로 그것은 情勢가 막히기 쉽고 참소와 이간질이 더욱 많은 까닭이다. 宮殿이라고 하는 곳은 嚴하고 날마다 나아가 뵈기에 事勢가 혹 막히고 일은 복잡다단하여 情이 혹막히고 멎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情勢가 막히기 쉽다는 것이요 참소와 이간질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兩宮사이에는 左右에서 가까이 모시는 환관과 女子들이 있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심부름하는 시종들이 모두 환관과 女人들이운데 이들의 성격이 대개 음흉사악하고 교활하여 간사함을 끼고 사사로운 생각을 품어 亂을 좋아하고 禍를 즐기며 孝慈가 무엇인지 禮義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오직 섬기는 일 만을 소중히 여겨 양쪽으로 서로 勢를 갈라 對立하여 많은 것을 비교하고 은혜와 원망이 잠깐 사이에 생기며 利害가 向背에 따라 決定되며 없는 것을 있다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하여 情狀이 萬가지로 나타나 도깨비나 불여우와 같이 或은 激하여 怒하게도 하고 或은 속여서 무섭게도 한다. 그런것에 혹시라도 귀를 기울여 믿게 되면 自然히 不孝가 되어 어버이를 不慈에 빠뜨리게 된다고 하고 있다. 또 人君으로서 能히 이 學問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고 或 뜻을 두더라도 能히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사람이 더욱 적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깊은 洞察은 적어도 현저하게 政治哲學書의 性格을 지닌 儒敎의 聖經賢傳과 史書에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先生의 出仕期間에 直接 見聞하고 經驗한 것을 미루어 알게 된 것에서 由來한 一端이라고 볼 수 있다.

孔子는 “政者는 正也”라고 하였다. 政治라고 하는 것은 不正을 바루는 것이라는 뜻이다. 바룬다는 것은 不正일 때는 바루는 것이요 不正이 거의 없는 治의 狀態라면 그것을 그대로 지속하여 不正으로 나아가지 않게하는 것이 포함된다. 要컨데 不正과 正이 짝이 되어 있는 二元性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陰陽對待的인 또는 治亂의 對待的인 것을 亂을 極小化 내지 없게하고 治를 極大化하는 것이 政治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퇴계선생은 儒敎政治思想을 계승하였을 뿐만아니라 보다 具體的으로 現實的으로 깊고 상세하게 洞察하여 다 알고 있다고 할 것이다. 性理學에 있어서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性理學은 宇宙萬物이 각각 짝을 지어 存在하고 있다는 理學이기 때문이다. 政治에 대한 위와같은 洞察이 있기 때문에 修齊治平을 이루기 위해서 곧 “政者正也”가 되기위해서는 聖學을 돈독히 하여 政治의 근본을 세우는 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宇宙와 人間 곧 天道와 人道가 闡明되어 있다. 곧 “道는 形象이 없고 天은 말이 없다. 河圖洛書가 나옴으로부터 聖인이 그것에 因하여 卦爻를 지으니 道가 비로소 天下에 나타났다”하였는데 이것은 太極陰陽論을 천명한 것이며 여기서 天地人 三才思想과 天人 合一思想 그리고 民本主義 政治思想이 또한 천명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宇宙의 大自然과 人間萬事는 治亂邪正得失盈虛消長興亡 盛衰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人間은 聖學을 알고 실천하였을 때 治正 得興盛盈長이 보장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人心 道心說과 그 精一執中의 心法이 또한 闡明되어 있다. 精一執中은 敬工夫에 의해서 敬工夫는 聖學十圖와 圖說에 의해서 具體的인 實踐方案이 提示되어 있다. 이를 쉬

임없이 長久하게 준수하여 궁행 실천할 때 與天地合其德하는 存在가 될 수 있다.

위와같이 퇴계선생은 敬工夫로서 人間의 完成을 垂敎하고 있거니와 朱子の 「大學或問」의 말을 이렇게 引用하고 있다.

或者가 가로되 그대는 敬을 어떻게 工夫하는가. 朱子가 가로되 程子是 일찍 “主一無適”으로써 말하였고 “整齊嚴肅”으로써 말하였으며 門人 謝氏는 이른바 “常惺惺”이란 것을 말한 일이 있고 尹氏는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敬이란 一心의 主宰요 萬事의 根本이다. 敬은 聖學의 始終의 要領이라고하는 朱子의 學說에 聖學十圖도 敬으로 主를 삼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聖學은 敬으로 근본을 삼고 理致를 窮究하고 致知하여 몸에 들이켜 참됨을 실천하는데 이르러서는 妙한 心法이며 道學을 傳하는 要諦라는 것이다. 이같은 眞知와 實踐의 學說을 銘心하여 敬으로써 시작하고 敬으로써 끝맺으라고 한다. 이같은 退溪政治思想의 또 하나의 특색은 謙德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山과 같은 높은 德을 가지고 낮은 땅속에 있는 이른바 “地山”이 謙의 表象 그것이다.